에너지 절약! 쿨한 당신!

집에서

냉장고 온도를 1도만 높여주세요

냉장고 온도를 1도 올리면 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은 영하 15도~영하 18도, 냉장실은 3~4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 문을 6초간 열어두면, 이때 올라간 냉장고 온도를 다시 내리는 데 30분이 소요됩니다.

진공청소기 먼지 필터부터 '싹싹'

진공청소기는 가전기기 중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큰 기기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경우엔, 먼저 필터와 먼지통을 청소해 주세요. 먼지 흡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낮은 전력을 사용해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세탁은 찬물로 해주세요

세탁물의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에너지 낭비가 심해집니다. 찬물로 세탁을 해도 세탁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가급적 찬물로 세탁을 해주세요.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 낮은 온도의 물로 세탁을 하는 것이 에너지를 아끼는 노하우입니다.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다리미는 처음에 켜서 가열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분량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림질하면, 연간 사용시간을 20%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빨래도 한꺼번에 모아서

소비전력이 큰 세탁기를 자주 돌리면 전력 낭비가 심해집니다. 한번에 많은 세탁물을 모아서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낮시간을 피해 밤에 세탁기를 돌리면, 전력피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업장과 사무실에서

문열고 에어컨 틀면 과태료 물어요!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서, 문을 열어놓아서야…. 정부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비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기는 이달 말 확정됩니다.

권장 냉방 온도를 지켜주세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6~28도입니다. 적정온도를 준수하면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방온도를 1도 조절할 경우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무기기 충전이 끝나면 플러그를 빼세요

휴대폰, 태블릿PC, 카메라 등 휴대용 전자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 다 충전되면 반드시 플러그를 빼주세요. 전력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흡혈귀, 대기전력을 잡아라

컴퓨터, TV 등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많은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이 같은 대기전력은 '전기 흡혈귀'라고 불릴 만큼 소모하는 전기량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주세요.

재킷은 벗어던지고, 타이도 훌훌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여름철 노재킷 근무를 권하고 있습니다. 노타이 근무에 이어지는 파격적인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체감온도를 2도 이상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Weekly 공감

2012.05.23 NO.160

gonggam.korea.kr

보고 즐기고 느끼고 여수엑스포가 부른다 P21~41

여수가 부른다

이원철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학창 시절이던 1993년, 대전엑스포에 간 적이 있다. 각국의 전시관 중 다양한 열대어들을 전시한 말레이시아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다. 대전엑스포의 주제는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였다. 엑스포 이후 대전이 얼마나 변하고 달라졌는지, 한국과 한국의 과학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다. 지정학적으로 바다와 떼어 놓을 수 없는 환경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면 바다와 관련된 일들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도 많다.

우선 매우 다양한 먹거리가 바다에서 나온다. 싱싱한 횟감부터 생선 요리들, 음식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멸치, 미역과 다시마를 포함한 해조류 등 그 종류를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해산물 없는 우리의 식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넓게 펼쳐진 개펄은 각종 어패류의 서식처이자 자연적으로 환경을 정화하는 거대한 천연 자정장치이기도 하다. 남해바다는 어족자원의 산란장으로 풍부한 수산물의 원천이 된다. 동해바다와 제주는 복잡한 도시와 일상에 지친 피로를 덜어 주는 휴식처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위안처이기도 하다.

바다는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선박 건조량과 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환경 덕분이다. 한국의 주요 공장과 발전 관련 시설 역시 모두 바다에 면해 있다.

우리는 국토의 삼면에 접해 있는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친한 벗이 있고 맛난 음식이 많아 즐겨 찾는 여수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엑스포가 한창이다. 엑스포엔 수많은 볼거리가 쌓여 있고 한국 해양의 미래가 있다. 여수에 갈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

이런 바다를 우리는 그냥 무한히 주기만 하는 존재로 여겨 온 것은 아닐까. 우리는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바다 하면 떠오르는 위인이 충무공과 장보고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바다를 수호한 충무공이 몸담았던 전라좌수영이 여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엑스포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여수에 다녀왔다. 여수는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들어서는 길도 넓어지고 기찻길도 새로 뚫려 왕래하기가 수월해졌다. 내가 여수를 즐겨 찾는 이유는 회의나 학술모임 같은 일 때문이지만, 친한 벗이 있고 맛난 음식이 많아서이기도 하다.

이 여수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엑스포가 한창이다. 엑스포엔 말 그대로 볼거리가 널려 있다. 그리고 한국 해양의 미래가 있다. 엑스포가 잘 마무리되고 나면, 여수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해양과학은 얼마나 발전할까.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신인가수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 밤바다'를 즐기러 떠나야겠다. G

Contents

160호
2012.05.23 통권 261호

표지 이야기 | 머리 위에서 빛나는 은빛 물고기들의 군무와 관람객들의 환한 미소가 아름답다. 세계 최초의 해양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는 여수엑스포가 개장한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다.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화려한 문화예술 공연들이 쉴 틈 없이 펼쳐지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세계 해양문화를 탐험하고 싶다면 지금 여수로 떠나라.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보다 향기로운 '여수 밤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기획특집

여수엑스포에 가면 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고속철도(KTX) 여수엑스포역에서 내리니 청량한 파이프오르간 소리가 귀를 적신다. 디지털갤러리의 현란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도 눈에 들어온다. 여수의 날씨는 선글라스가 필수품일 정도로 눈이 부시다. 박람회장 곳곳에는 수학여행을 온 중고생들, 효도관광을 하러 온 어르신들, 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을 하러 온 아이들,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러 온 연인들로 넘쳐난다. 남녀노소는 물론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모여 또 다른 문화 박람회를 연출하는 곳, 더 더워지기 전에 여수로 달려가 보자.

21

12

56

18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5.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7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이야깃거리와 문화를 파는 전통시장 시장사람들의 자구노력에 박수 보내

158호 기획특집 '활기 찾는 전통시장'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 가족 또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대형마켓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대형마켓에서 가질 수 없는 전통시장만의 장점을 살리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이 문화장터로 변신한다거나 자체라디오, 신문을 발행하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깃거리와 문화를 파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더라고요. 앞으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시장사람의 입장에서 눈이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전통시장이 대형마켓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더라고요.

각 시장만의 특성화된 마케팅과 저렴한 가격, e-마케팅을 통해 전통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장사람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강성주(42·시장상인·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가정의 소중함 잊지 말아야

159호 '가정은 사랑을 가르치는 교실'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가정'의 소중함은 영원히 변해선 안 되는 것이겠죠. "사랑은 가정이라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어 자식들이 또 집에 온다고 하네요. 자식들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 음식을 만들어줄 생각에 무척 설렙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황복희(53·주부·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장애인봉사단 자원봉사활동 감동

159호 '도움만 받다 남 도우니 정말 뿌듯해요' 기사 잘 보았습니다. 장애인봉사단이 자원봉사활동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반대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특히 남을 도우면서 자신감을 찾아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했다는 봉사단원의 소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지만 이런 봉사단원들이 있기에 아직은 따뜻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영지(30·회사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독자 인터뷰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여수엑스포 여행가이드 돼주세요"

장재진(26·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장재진씨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있다. 졸업을 앞둔 터라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다. 〈위클리 공감〉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시야를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 159호에 실린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멈춰'를 보면서 '신선하다' 생각했다고 한다.

159호에서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

"159호 기사 '멈춰 프로그램'이 교실을 바꾸고 있다'를 읽어보니 학교폭력에 맞서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사에는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위해 '멈춰'를 외치며 적극 행동을 취한 학생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른 친구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놀랍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부모의 대응법을 사례별로 나눠 소개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는 어떤 게 있나요.

"요즘 들어 여수가 북적인다고 하더라고요. 표지에 실린 '빅오(BIG-O)' 사진을 보고 꼭 한 번 여수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돔 스크린이 여수박람회에 있다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됐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여수를 찾도록 〈위클리 공감〉이 여행가이드가 돼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수박람회에서만 접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위클리 공감〉에 나온 여수엑스포 기사를 스크랩해 여수에 가보려고 합니다."

공감퍼즐

도전! 2012여수세계박람회 퀴즈

이 사람은 '국민 여동생' 아이유와 함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축구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00년대 한국 최고의 축구 스타입니다. 한·일월드컵 직후 네덜란드 프로축구클럽 PSV아인트호벤으로 영입됐으며, 현재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강철체력을 보여주며 '산소탱크'로 불리기도 하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퀴즈 정답과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7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여수엑스포 입장권 3매를 보내드립니다.

157호 여수엑스포 퀴즈 정답 빅오

157호 여수엑스포 퀴즈 당첨자

이금순·경기 화성시 병점동 | 정새봄·충남 논산시 대교동 | 박기순·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 유태근·경북 구미시 오태동 | 이형문·강원도 속초시 교동

알 림 '201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 작품과 체험수기를 공모하는 '201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공공디자인 아이디어·실현 작품 부문'과 '공공디자인 수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공공디자인 아이디어·실현 작품 부문'은 간판, 포스터, 표지판 등과 관련된 '시각·인터랙션디자인 분야'와 제품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과 관련된 '제품·공간디자인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를 참고하면 된다.

공모대상 | ①수기공모 : 전 국민 ※단체(팀) 접수 불가 ②디자인 공모(아이디어 부문) : 디자인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업계 종사자 개인 또는 팀 ③디자인 공모(실현 부문) : 디자인 실물이 제작된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개인(팀) 또는 단체

신청분야 | ①수기 공모 ②디자인 공모(아이디어 부문) ③디자인 공모(실현 부문)

접수기간 | ①수기 공모 : 7월 20일 ~ 9월 21일 ②디자인 공모 : 8월 20일 ~ 9월 21일

접수방법 | ①수기 공모 : 이메일(designaward@kcdf.kr) 접수 ②디자인 공모 : '201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홈페이지(http://www.kcdf.kr/designaward)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는 우편·방문을 통해 별도 접수.

문의 | **공모전 담당자 ☎02-398-7954**

바로잡습니다

159호 5쪽에 실린 157호(5월 2일자) 공감퍼즐 정답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가로 1 꽁치 3 수다 5 홀씨 7 지출 9 새끼줄 11 거문도

세로 2 치수 4 다래끼 6 씨돼지 8 출판도시 10 줄거리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6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
3. 세 살 이것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죠.
4. 마늘이나 마늘종, 마늘잎 등을 간장, 된장 등에 담가두었다가 간이 밴 다음에 먹는 반찬은?
6. 지구가 돌아 움직이는 운동. "코페르니쿠스는 OO설을 주장했다."
8. 넓고 큰 바다. 태평양·대서양·인도양…. "여수엑스포에는 첨단 OO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세 로

1. 아웅산 폭탄테러, 수치 여사, 이명박 대통령 방문….
2.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치는 장막.
3. 벚나무의 열매.
5. 김정현 장편소설 OOO, 힘내세요!
7.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 East Sea. "OO는 대한민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이 인접한 해역이므로 관련국 중 어느 한 나라의 국호를 따라서 이 해역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Weekly 공감〉 158호(5월 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조리사 3 전국 4 이야기 5 태클 6 장소

세로 1 조국 2 사이클 3 전통시장 5 태교 7 소통

〈Weekly 공감〉 158호 '공감 퍼즐' 당첨자

박진경·전남 여수시 문수동
심은미·강원 태백시 상장동
김현희·경북 안동시 태화동
이나리·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김세련·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4일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5일 미얀마 양곤에서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5일 양곤의 아웅산국립묘지를 참배하며 29년 전 북한 테러로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 3국 FTA 연내 개시 합의

이명박 대통령, 중국에 이어 29년 만에 미얀마 국빈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과 미얀마 등 2개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가지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또 한국 국가원수론 29년 만에 미얀마를 처음 방문,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미얀마 국빈 방문

정상회담서 원조확대·개발경험 공유하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4일 한국 국가원수로는 29년 만에 미얀마를 국빈 방문,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무상 원조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의 개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1975년 수교 이래 유지되어 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 개발경험 공유,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문화·인적교류 증진 등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한반도·동북아 및 동남아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평가하고, 투자교류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얀마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최근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와 개혁·개방 조치로 인한 미얀마 내 정세변화에 발맞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정상은 14일 저녁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국빈만찬을 갖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한편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한류 등 미얀마 내 한국 문화의 인기,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수치 여사 만나… 아웅산 테러 현장 방문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양곤 시내 한 호텔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얀마가 경제도 성장하지만 민주화가 함께 이뤄지는 변화를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수치 여사는 "정의·자유와 번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이 같이 가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 여사를 만난 데 이어, 미얀마 독립영웅이자 수치 여사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묻힌 아웅산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북한이 1983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얀마 공식 방문을 노리고 폭탄 테러를 벌인 곳으로 29년 만의 우리 국가원수 방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폭발 지점에서 5~10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참배한 뒤 "이런 역사(비극)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가족(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적힌 조화 앞에서 묵념했다.

5월 13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운데), 노다 일본 총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3일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4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투자보장협정 서명… 한반도 정세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최초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및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한·중·일 FTA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유엔을 평가하는 한편, 최근 북한 정세와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 및 북한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처에 있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3국 간의 제반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확대되어 가고 있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FTA 협상이 연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진타오 주석과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의 발전상을 점검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이룩한 양국 관계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2008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도 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13일에는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양국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2015년 교역목표 3천억 달러의 조기달성과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에너지·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금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양국에서 활동 중인 상대국 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중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개막된 여수엑스포가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양 국민 간 우호친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원 총리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중국 정부의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했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3국 FTA 협상 시작은 세계경제에 기여"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 서밋은 지난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경제단체 간 합의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2009년부터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경련,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의 게이단렌이 대표 채널을 맡고 있으며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과 함께 3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5월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일본 경산성 대신이 공동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캠퍼스 아시아' 출범식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오늘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며 북미·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전 세계 무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G20 국가들이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Standstill)과 금융규제 개혁 등 정책공조로 세계를 불황으로부터 구해냈듯이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의 어려움도 자유무역의 확대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EU를 비롯한 4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GDP의 61퍼센트에 이르는 시장을 연결하는 자유무역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에 대해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개막한 여수세계박람회에 중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인이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녁엔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중·일 3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으로, 3국 정상, 관계 대학 총장, 대학생이 참석하여 '캠퍼스 아시아'의 출범을 기념하고 3국 간 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캠퍼스 아시아' 출범 기념식도 참석

3국 정상은 공동으로 CAMPUS Asia 출범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시작, 3국의 학생들이 국가별로 만든 전시 부스를 함께 관람하고 학생들과 함께 연 만들기(韓), 전통 매듭짓기(中), 꽃꽂이 관람(日)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목을 다졌다.

특히 한국의 동서대·성균관대·KDI국제정책대학원을 비롯해 베이징대·런민대·칭화대(중국), 나고야대·리츠메이칸대·히토쓰바시대(일본) 등 각국별 3개 대학의 총장들이 대표로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G

글·이범진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북한 인권문제 세계적 논제로 끌어올렸다"

美〈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인권위 보고서 인용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5월 15일 '북한의 수용소(North Korea's Gulag)'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한 가지 업적에 대해 찬양받을 만하다"며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세계적인 논제로 끌어올렸다"고 조명한 것이다.

WSJ는 그 근거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수용소는 북한 내 전역에 산재해 있고,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다. WSJ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수용소에 수감됐던 2백여 명의 수감자들이 증언한 상세하고 끔찍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증언한 충격적인 범죄의 실상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 체제를 연장시켜 주는 모든 대북 지원이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란 점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세계적 논제로 끌어올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서 높이 평가했다. 지난 16일 서울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송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 중요"

WSJ는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이처럼 많은 증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 증언들은 북한이 붕괴된 뒤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은 전범재판이 열릴 경우 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수용소를 관장하는 북한 관리들이 그들의 범죄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필요한 잔학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이 같은 고통은 북한의 김씨 일가가 무너져야만 진정 종식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0여 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들이 한·미 양국이나 기타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뜯어내기 위해 핵 협박 게임을 벌이는 한,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SJ는 "현재 2만3천여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사연과 남은 가족에 대한 우려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을 중단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보고서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며 "원조를 통해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것은 북한 수용소 재소자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권위 산하 북한인권침해센터는 지난 5월 4일,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내용을 종합해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요덕·개천·북창·회령 등 정치범 수용소 4곳과 증산·전거리 등 교화소(교도소) 2곳에서 벌어진 수용자들의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서림천방 건설소분조에서 2000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머물렀다는 한 신고자는 "2년6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86구나 되는 시신을 매장했다"고 증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인 김태훈은 "통일 후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 북한의 인권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담은 사례집을 발표했다"며 "이번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침해와 관련해 낸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G

글·이범진 기자

김황식 총리가 지난 5월 16일 도전과 나눔·공생을 실천한 '감동인물'들을 총리공관에 초청, 오찬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배정철, 박지용, 곽기정, 유다희, 이수경, 김황식 총리, 황경화, 한지혜, 김미자, 명선목, 조희재, 유승흡씨.

따뜻한 여러분이 있어 우리가 행복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나눔과 도전 앞장선 '아름다운 이웃' 초청 격려

대한민국 대표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은 지난 1년여 동안 도전과 나눔, 공생과 공감 현장에서 감동을 전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만났다. 도전정신으로 경계를 뛰어넘은 젊은이,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문 장애인, 소외된 이웃을 따뜻이 안은 단체, 정책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공무원 등이다. 이 중 11명을 김황식 국무총리가 초청, 5월 16일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날 초청된 인물은 명선목(65) 인천혜광학교 교장, 박지용(26) 현대자동차 총무팀 의전담당, 이수경(45) 사회복지법인 위캔센터 대표, 유승흡(65)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김미자(54) 죽우회 회장, 배정철(49) '어도' 대표, 곽기정(41) 장애인 행정도우미, 유다희(35) 공공프리즘 대표, 조희재(33) 착한부동산 골목바람 대표, 한지혜(29) 청년유니온 위원장, 황경화(24·베트남) 다문화가정 주부 등이다.

이들은 〈위클리 공감〉에 소개돼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인물들이다. 김황식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귀한 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또한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근황과 더불어 애로사항이 뭔지 물었다.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한 명선목씨

"내년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합니다"

명선목 인천혜광학교 교장은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인물이다. 김황식 총리가 "앞으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고 묻자 명 교장은 이렇게 답했다.

"내년 6월 말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옵니다. 이분들이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 과정을 밟은 후 협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협연해 화제가 됐다. 이후 연주 스케줄도 화려하다. 오는 9월과 11월에는 정기연주회를 갖고, 12월 말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무대에 서고, 2016년에는 유엔에서 조수미씨와 협연할 예정이다.

명 교장은 "큰 공연들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루는 악기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라며 "다음달에 개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하세요〉가 흥행에 성공해 좋은 악기를 새로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감동인물' 11인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로 유럽여행 후 UCC 제작한 박지용씨

"이번엔 철인3종경기 풀코스에 도전합니다"

G20 세대 박지용씨는 자전거로 유럽여행 후 유럽인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UCC로 제작해 화제가 된 젊은이다. 그는 이 UCC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UCC 동영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 도전할 생각이냐"고 김 총리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릴 때부터 대학생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전거로 유럽여행을 하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철인3종 경기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인3종 경기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재주가 많은 박씨는 친구들과 어쿠스틱 밴드 '살피재 4번 출구'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그는 "6월에 홍대 인디밴드 무대에 게스트로 참여하고, 가을에는 단독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사 1년이 채 안 된 신입사원으로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수경 수녀는 지적장애인들의 일터이자 쿠키 제조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위캔센터 대표다. 위캔센터에서는 현재 지적장애인 39명과 비장애인 19명이 함께 수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희망사항이 무엇이냐"는 김 총리의 질문에 이수경 수녀는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이 저희가 정성들여 만드는 쿠키를 많이 사주었으면 합니다. 쿠키 판매가 증가하면 그 매출액으로 월급도 주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죠. 장애인들을 시혜적 차원에서 돕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게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삶 언급한 김황식 총리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사회 안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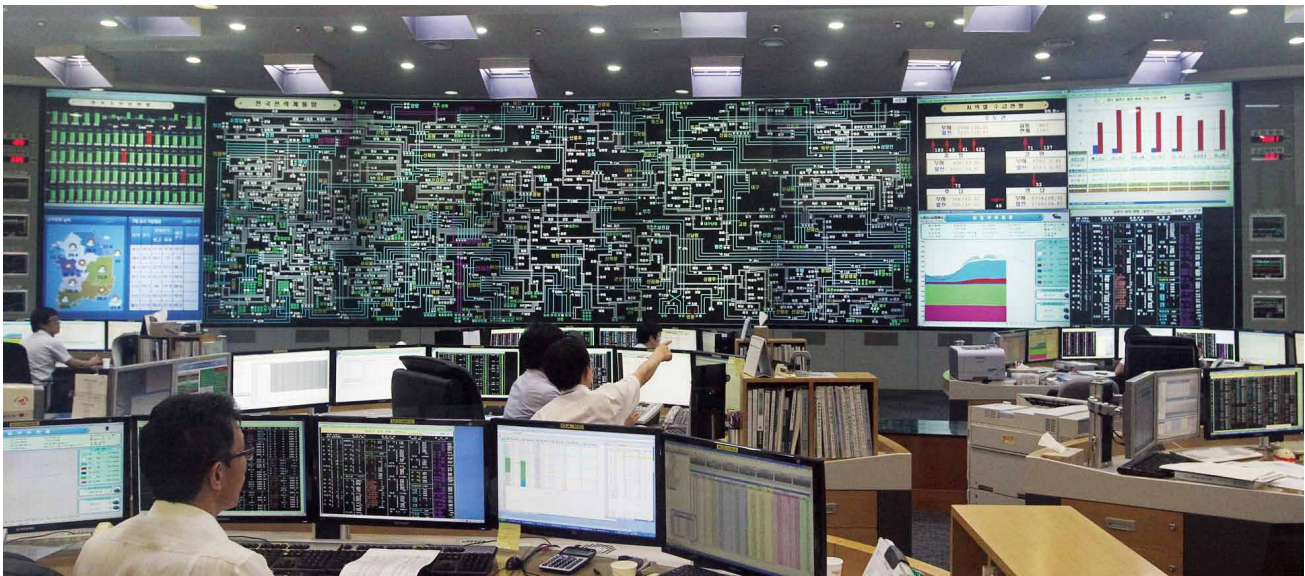
배정철씨는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 '어도'를 운영하며 20여 년 동안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비와 장학금, 치료비 등으로 50억원을 기부해 온 인물이다. 그 공로로 지난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지난 3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상'도 받았다.

배씨는 현재 일식집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김 총리의 질문에 "지금껏 해오던 대로 남을 도우며 즐겁게 살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외에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으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곽기정(신장장애 2급)씨,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의료사각지대 환자를 돕고 있는 유승흡씨, 굿네이버스의 식사봉사 모임 '죽우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자씨, 공공미술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마을과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유다희씨, 젊은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알선해 주는 조희재씨,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 대우를 받는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한지혜씨,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 다문화여성 황경화씨가 오찬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故)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숭고한 삶을 언급하며 "나눔을 실천한 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새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중한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글·서철인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여름을 앞두고 전력수급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 공급의 심장부인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백화점 등 대형건물 냉방 26도 제한

여름 전력수급 초비상…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유난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올 여름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절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피크시간대에 몰리는 전력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백화점, 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 냉방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월 초 우리나라 기온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10도나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때 이른 무더위로 2백만~4백만킬로와트의 전력수요가 급증, 한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7천7백7만킬로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공급량은 7천8백54만킬로와트. 공급량이 수요량을 아슬아슬하게 웃도는 위기상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산업체도 여름 휴가를 8월 중순 이후로 분산

정부는 5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에너지자원정책과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기는 이달 말 확정된다.

전력 피크수요의 50퍼센트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계는 ▲자발적으로 휴가기간을 분산하고 ▲조업시간을 조정하며 ▲자가 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절전대책에 동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7월 말~8월 초 집중돼 있는 휴가를 8월 중순 이후로 분산하는 식으로 예비전력이 모자라는 8월 말 전력수급 안정에 협조하게 된다. 조업 특성상 휴가 분산이나 조업 조정이 어려운 정유·석유화학 업종은 전력 피크시간대에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키로 했다.

산업체 협조를 통해 확보되는 예비전력은 4만킬로와트(휴가·조업조정 3백만킬로와트, 자가발전 1백만킬로와트) 수준으로, 원자력 4기 발전량에 해당한다.

김황식 총리가 하절기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를 억제하기 위해 전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 것은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현재 가정용 냉방으로 인해 사용되는 전력량은 전력피크의 21퍼센트가량이다. 정부는 피크시간대에 몰리는 전력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백화점, 호텔 등 2천티오이(TOE) 이상을 사용하는 4백78개소의 대형건물에 대해 냉방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키로 했다.

티오이란 가스,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석유로 환산한 수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1티오이라면, 이는 한 사람이 1년에 1톤의 원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2.17티오이에서 2009년 4.99티오이로, 19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26도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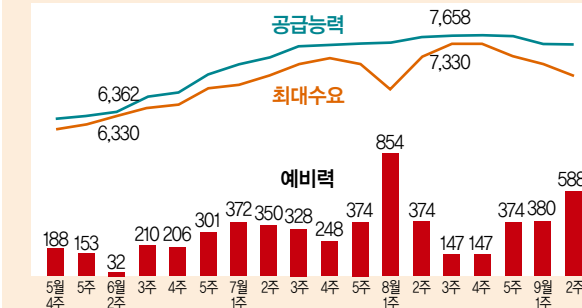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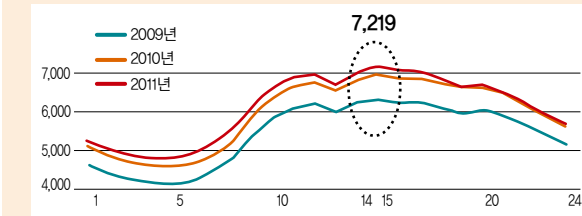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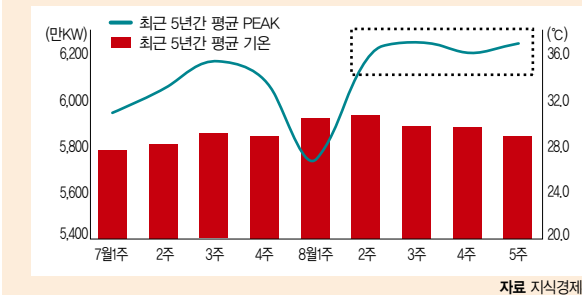
경제가 발전하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다. 2009년 시장환율로 계산한 한국의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량/GDP)는 0.299로 0.096인 일본보다 3배, 0.157인 독일보다 2배나 많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174도 크게 상회했다. 2009년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25위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만9천 개소 공공기관에 대해 전년대비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전기소비절약도 추진된다. 냉방온도는 섭씨 28도로 제한하고, 피크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지역을 두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냉방기를 30분씩 번갈아가며 중단하며, 에너지절약형 의류 입기, 넥타이 착용 안 하기 운동 등을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백화점, 호텔 등의 4백78개의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를 섭씨 26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냉방기 사용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지경부, 한전, 발전회사 등 전력당국은 '전력수급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전 10기 계획대로 건설해야 수급에 탄력

전력수급 비상과 관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예정된 원전 10기(1만2천8백메가와트)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수일 연구위원은 16일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한 에너지정책' 보고서에서 "적극적 수요관리 없이는 전력수급 불안이 2010년대 내내 지속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에너지계획 간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본법적 성격의 법체계·계획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계획의 실효성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다른 부문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전력,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9월 발생한 정전사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 운용되지 못한 결과"라며 "이미 건설 중인 7기 원전은 5년 이상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석탄, LNG 발전 등 타 전원으로 대체가 곤란한 만큼 2020년까지 계획된 10기 원전은 안전규제기능의 강화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G

글 · 이범진 기자

한국 발전사 취재 위해 방한한 알자지라 방송 아흐메드 셰이크 고문

"한국인의 교육과 열정이 가장 인상적"

아랍권의 대표적인 24시간 뉴스 전문 방송인 알자지라의 다큐멘터리 〈위트니스〉 제작진이 역경을 딛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경제발전 원동력을 취재하기 위해 방한했다. 5월 5일 한국을 찾은 이들은 20일가량 한국에 머물며 경제, 교육, 문화 현장 곳곳을 취재하고 한국,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냈다.

이정민 기자

알자지라의 아흐메드 셰이크 고문은 한국을 직접 와서 보니 기대이상이라고 말하면서 교육을 한국 경제발전 원동력의 첫번째 요소로 꼽았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석유나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산도 많은데다 6·25전쟁을 겪어 지금의 아프리카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놀라운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아랍권의 대표적인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인 '알자지라(Al Jazeera)' 방송의 아흐메드 셰이크(63·요르단) 고문이 다큐멘터리 제작차 한국을 찾았다.

지난 5월 5일 셰이크 고문과 함께 방한한 일행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카메라맨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위트니스〉(Witness)는 알자지라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2시간 동안 집중 조명하게 될 〈위트니스〉는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발굴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 특히 깊이 있는 휴먼 스토리로 다수의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기술 발전의 배경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위트니스〉이고, 10년째 제작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인구도 5천만명의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기술대국으로 성공한 스토리를, 왜 한국이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조 시절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현재의 대통령제 등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지금의 인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와서 보니 정말 다릅니다.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최근엔 빠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같은 유럽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조선DB

셰이크 고문을 포함한 알자지라 다큐멘터리 〈위트니스〉 제작팀이 방한 중 울산의 한 조선소를 찾아 취재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참 잘 알고 계시는군요.

"한국이 가진 장점,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서구화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트니스〉는 어떤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까?

"영어와 아랍어 채널로 방송됩니다. 영어·아랍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 2개도 운영 중입니다."

알자지라 영어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책가방 대신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를 사용하는 한국 세종시의 '스마트 스쿨'에 대한 기사(5월 14일자)가 올랐더군요.

"다른 나라 역시 그렇지만 교육은 한국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핵심 요소이죠."

그동안 한국의 여러 기관, 기업, 학교 등을 둘러보셨는데 한국의 발전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했다고 느끼셨나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그리고 조선소, LCD공장, 카이스트 등을 방문하며 느낀 것이 첫째가 교육이지요, 둘째는 한국인들이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열성적이라는 점입니다. 세번째는 관리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알자지라는 때론 서방국가들로부터 이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부터는 서방의 입장에 선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알자지라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고 자유를 추구합니다."

현재 몇 개국에서 알자지라 특파원들이 활동 중입니까.

"40개국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파원을 파견하지 않은 대륙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특파원을 파견하지요. 한국에도 그동안 부산개발원조총회, 서울G20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나 이슈가 있을 때 특파원을 파견했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도하 본사에 여성 근무자들이 있나요?

"물론이지요. 머리에 히잡만 썼을 뿐 기자, 프로듀서 등 여러 직종에서 여성 비율이 25퍼센트가 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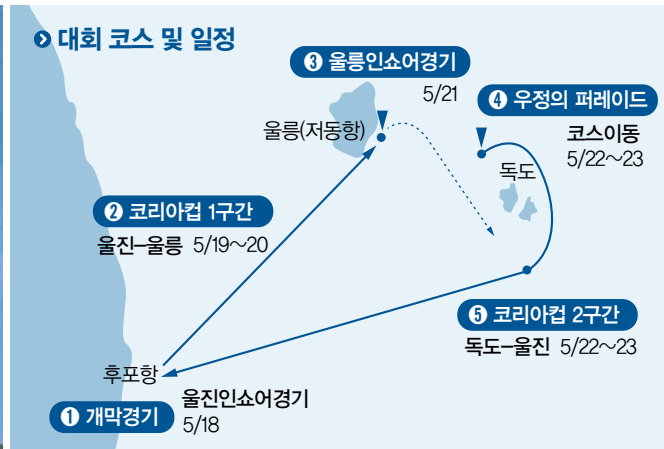
다른 가족들도 한국에 대해 잘 아는지.

"6남1녀가 장성해 이젠 아내와 둘이 도하에서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음식점을 찾을 정도로 우리 부부 모두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도 즐겨봅니다."

언론인으로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많은 전쟁을 취재했고, 전 세계 80개국을 다녔습니다. 2년 전에도 수단 남부지역에 갔다가 반군들에게 붙들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총을 쏘며 협박하는 그들에게 붙들려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고 겨우 풀려났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언론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알자지라에는 은퇴 연령이 없어요. 77세 현역도 있습니다." G

글·박경아 기자

2012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는 울릉도와 독도를 배경으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10개국 2백25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5월 18일 2012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개막 행사로 울진군 후포항 부근에서 인쇼어경기가 펼쳐졌다.

독도는 외롭지 않다 우리가 간다

2012 코리아컵 국제요트 24일까지 열띤 레이스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2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일대와 독도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울진군은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러 가던 수토사(搜討使)들이 순풍을 기다리며 머물던 대풍헌(待風軒)이 있는 곳으로 수토사들의 출발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울진군은 이번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2012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10개국에서 26척, 2백25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뽐낸다. 러시아 범선 나제즈다호에 승선한 극동러시아해양대 학생 2백명과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요트부 여학생 3명도 참가했다. 올해는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와 병행 개최된다.

대회는 해안 가까이에서 펼치는 인쇼어경기와 먼바다에서 펼치는 외양경기로 진행된다. 경주거리는 전문 선수가 참가하는 코리아컵이 약 3백85킬로미터, 동호회팀이 참가하는 우정 퍼레이드가 약 1백킬로미터에 달한다. 특히 23일 독도에서 출발하는 경기는 대회 사상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은 물론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 1백88개국에도 동시 방영된다.

대회기간 동안 후포항 앞바다에는 길이 1백8.65미터 무게 2천2백97톤의 러시아 최대 범선인 나제즈다호와 세계적인 크루즈 요트들이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승선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거북선과 소망의 종이배 띄우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G

글·박근희 기자

해양의 속살을 보러 여수엑스포로 떠나자

고속철도(KTX) 여수엑스포역에서 내리니 청량한 파이프오르간 소리가 귀를 적신다. 엑스포디지털갤러리의 현란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도 눈에 들어온다. 여수의 날씨는 선글라스가 필수품일 정도로 눈이 부시다. 박람회장 곳곳에는 수학여행을 온 중고생들, 효도관광을 하러 온 어르신들, 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을 하러 온 아이들,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러 온 연인들로 넘쳐난다. 남녀노소는 물론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모여 또 다른 문화 박람회를 연출하는 곳, 더 더워지기 전에 여수로 달려가 보자.

일러스트 · 유현호

여수엑스포는 바다 자체를 박람회장으로 삼은 최초의 박람회다. 콘텐츠·체험 중심의 세계 첫 해양박람회이기도 하다. 또한 전시관 예약제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 새로운 관람문화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엑스포 관람객들이 주제관을 향해 들어가고 있다.

콘텐츠·체험 중심 세계 최초 해양박람회

예약제 등 스마트 박람회로… "여수, 아시아권 제일의 해양관광 리조트 될 것"

여수엑스포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개장 6일만에 누적 관람객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엑스포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전시관 예약제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을 활용한 관람객 서비스도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이다. 여수엑스포는 전시 위주의 기존 박람회에서 탈피, 체험과 문화예술 행사의 비중을 높인 문화박람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첨단 정보기술(IT)과 바다의 만남을 꾀한 여수엑스포는 개막식에서부터 전시, 문화행사 등을 하나의 주제로 꿴 첫 박람회이다. 전시정보와 관람예약, 관광정보와 숙박예약 등이 모바일로 구현되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박람회'이기도 하다.

박람회장은 다도해가 펼쳐지는 여수 신항 일대(2백71만제곱미터) 바다와 육지에 조성돼 있다. 여수엑스포는 바다를 박람회장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스페인의 사라고사 등 바다를 주제로 한 박람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바다 자체를 박람회장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계 1백4개 국가가 참가한 박람회가 한창인데, 모두 바다를 주제로 하고 있다. 주제관도 바다 위에 건립됐고, 개막식도 바다 위에 건립된 해상무대에서 거행됐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도 바다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수엑스포를 '주제와 전시, 문화행사까지 바다로 통합시킨 세계 최초의 해양박람회'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모바일 예약제로 전시장 혼잡도 완화

성공적인 엑스포의 기본 요건에는 사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포함돼 있다. 이 점에서 바다에 건설된 여수박람회장은 유리하다.

강동석 조직위원장은 "엑스포가 끝난 후 여수 신항 일대는 아시아권에서 제일가는 해양관광 리조트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의 핵심 콘텐츠와 아름다운 오동도, 크루즈터미널과 고속철도(KTX) 여수엑스포역까지 볼거리와 편의시설, 교통망까지 갖춘 해양종합 리조트로 조성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람회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모바일 서비스와 예약관람 시스템도 기존 박람회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박람회 통합 앱(expo2012)을 통해 전시정보뿐만 아니라 여행, 교통, 숙박, 맛집 등 박람회장 안팎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박람회 통합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 앱 속에는 '남해안 즐겨찾기' '엑스포 투어' '환승주차 정보' 'UCC' '캐치 엑스포' '엑스포 공유' 'U-패스포트'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의 개별 앱이 포진해 있다. 이 앱들을 다운받으면 박람회 관련 각종 정보는 물론 현장에서 잃어 버린 친구나 아이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은경 U-IT부 팀장은 "대전엑스포가 국가 홍보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였다면 이번 여수엑스포는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라며 "통합 앱을 통해 박람회장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오면 즐거움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약관람 시스템은 인기 전시관의 경우 3~4시간씩 줄을 서야 관람이 가능한 기존 엑스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xpo2012.kr)나 스마트폰 통합 앱을 통해 주요 전시관을 예약(입장권 1매당 2개 전시관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시장의 혼잡도와 대기시간을 대폭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관 예약제는 형평성을 위해 사전예약(30퍼센트)과 현장예약(70퍼센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주제관 ▲한국관 ▲아쿠아리움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문명도시관 ▲대우조선해양로봇관 ▲해양생물관 등 8개 전시관이다. 사전예약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 있고, 현장예약은 키오스크(현장예약 전용 기기)로도 가능하다. 이은경 팀장은 "IT 기기에 서투른 어르신들의 경우 현장에 오면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대행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여수엑스포의 또 다른 특징은 건물·기술 중심의 박람회에서 탈피해 콘텐츠와 사람 중심의 박람회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눈으로 보는 요소보다 오감으로 체험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거리공연과 체험공연이 하루 평균 70여회씩 펼쳐져 지루할 틈이 없다. 아크로바틱, 저글링, 마임, 트램블린 서커스 등 세계 거리공연과 서커스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팀들의 명품 공연이 여수를 글로벌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천막극장에서 열리는 '사과가 쿵'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구름빵' '어린이난타' 등의 체험공연은 아이들로부터 "놀이공원보다 더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루할 틈이 없는 오감만족 박람회 추구

여수엑스포의 절정은 밤늦게 펼쳐지는 빅오(Big-O)쇼다. 최첨단 영상기술과 레이저 화염 장비들이 빚어내는 멀티미디어쇼는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수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라면 "빅오쇼를 빼고 여수엑스포를 논하지 말라"고 할 정도다. 빅오쇼는 매일 밤 9시30분에 여수 앞바다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이후 빅오쇼 무대는 젊은이들의 차지다. 밤 10시가 되면 이곳 해상무대에서는 DJ댄스쇼가 40분 동안 펼쳐진다. 매일 밤 20~30대 젊은이들이 이곳 해상무대를 용광로처럼 달궈 놓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콘텐츠 때문일까. 이번 여수엑스포에는 '공짜표'가 없다. 이것 또한 기존 엑스포와 다른 점이다. 개장 초기 관람객 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에 대해 조직위 측은 "무료입장권을 뿌리지 않은 여수엑스포에 허수 관람객은 없다"며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엑스포 열기도 더해 관람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말은 곧 7, 8월보다는 5월과 6월이 관람하기에 편하다는 얘기로 들렸다. G

글·서철인 기자

여수엑스포의 모든 길은 디지털갤러리로 통한다. 바닷속에 온 듯 환상적인 영상이 펼쳐지는 디지털갤러리는 항상 관람객으로 붐빈다.

엑스포를 즐기려면 바다와 미래라는 엑스포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 해양생물관(왼쪽)이나 세계 최대 돔 스크린이 있는 한국관(오른쪽)에 가 보자.

하루를 이틀처럼… "공간활용 잘하세요"

눈에 띄는 대로 걷다간 금방 지쳐… 주제를 정해 알뜰한 탐방을

서울에서 여수까지 고속철도(KTX)로 3시간. 먼 거리가 아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엑스포지만 일정만 잘 짜면 하루로도 충분히 즐기다 올 수 있다. 하루를 이틀같이 관람하려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꼭 찾아가야 할 곳을 정하되 나만의 주제에 맞춰 숨은 즐길거리를 찾고, 엑스포장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것이다.

기자가 처음 외국인을 만난 게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였다. 전통의상을 입은 무슬림 외교관 옆에서 뻣뻣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기념처럼 남아 있다. 대전엑스포가 고도성장기를 거친 한국의 발전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이는 자리였다면 여수엑스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과 성숙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다. 몇날 며칠 동안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겠지만 하루만 시간을 내도 19년 만의 엑스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오전 8시35분 | KTX를 타고

'엑스포 관람도 식후경'… 바닷바람 맞으며 '냠냠'

오전 8시35분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도착 예정 시각은 오전 11시33분. 여수엑스포역을 나오면 바로 엑스포장 입구, 3문이 보인다. 천천히 걸어도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다. 미리 입장권을 사 뒀다면 곧바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디지털갤러리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기본. 사진을 찍으며 바닷속에 온 듯 환상적인 영상에 고개를 젖히노라면 3문 왼쪽에 안내데스크가 보인다. 지도 한 장과 거리공연 예정표 등을 받아 들고 배고픔을 해결하려 자리를 옮겼다.

엑스포장 내에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준비돼 있는데 디지털갤러리 양옆으로 보이는 식당 외에도 국제관 지하나 주요시설 주변마다 푸드코트가 있다. 기왕 바다 근처로 왔으니 도시락을 사서 엑스포광장 주변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는 것도 상쾌하다. 엑스포를 즐기는 방법 첫번째는 이처럼 엑스포장 곳곳의 공간을 넓게 이용하는 것이다. 빅오(Big-O)가 보이는 엑스포광장에 서 있으면 "그 어떤 박람회장보다 아름답다"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비센테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의 말이 와 닿는다.

해양광장 앞 가게에서 덩어리를 휘두르고 던져 쫀득한 아이스크림을 내놓는 터키인 알리(28)는 대구 시내에서 케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5년 살아 경상도 사투리도 곧잘 구사하는데 엑스포 기간 내 케밥과 아이스크림을 팔며 여수를 지킬 예정이란다. "원래 하던 일도 터키 음식을 만들어 터키를 알리는 일 아니가. 엑스포 오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터키 음식 맛있다'고 하면 그게 내 자랑이제."

오후 1시 | 꼭 보고 싶은 곳 정해 놓으셨죠?

아쿠아리움 · 한국관 등 인기 장소 미리 '찜'

엑스포를 즐기는 방법 두번째는 꼭 가야 할 곳을 정해 두는 것이다.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다. 바다와 환경, 과학이라는 엑스포 주제가 어우러진 주제관이나 한국관, 해양베스트관 등에서 관람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중 세계 최대 규모의 돔 스크린이 있다는 한국관을 선택했다.

기다리는 사람들로 빽빽한 한국관 앞, 광대 분장을 한 외국인이 마술쇼를 펼치자 아줌마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알고 보니 대전엑스포가 열린 1993년 기자가 살던 동네 부녀회에서 마실 나온 관람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사진기를 들이밀자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대열 중에 김난희(81) 할머니의 한마디, "인터뷰해 줄게, 사진은 찍지 마". 할머니는 손자가 마련해 준 돈으로 2010년 상하이엑스포도 다녀왔다며 "주제관에 가 보니 상하이엑스포보다 더 알차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관 전시는 두 편의 영상으로 꾸려져 있다. 우리 해양의 역사를 소개하는 디오라마(모형)와 영상 앞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공연단이 관람객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전시관을 빙빙 돌았다. 돔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밝은 미래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바다를 통해 보여주는 영상에 관람객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김남중(72) 할아버지는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고 뿌듯해졌다"며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관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관이 아니라도 멸종위기 해양포유류 듀공과 소년의 우정을 그린 영상이 상영되는 주제관, 해양관측기기와 선박모형 등이 전시된 해양베스트관에 들를 수 있다. 여수엑스포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등록박람회'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 '인정박람회'다. '바다를 푸르게 지켜 인류의 미래를 살리자'는 여수엑스포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아쿠아리움은 바다 도시에서 열리는 여수엑스포의 대표적 전시관이다. 5월 15일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장 첫 주말인 12일과 13일, 양일간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은 3만3천명으로 조직위 주관 전시관 8개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런 만큼 예약을 했다 해도 입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쿠아리움 앞에서 만난 부여여중 2학년 학생들은 그저 들떠 있는 모습이었다. "흰 고래 벨루가를 보는 게 가장 기대된다"는 채지은(14) 양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푸른바다 원정대'를 따라가는 4D 영상물에 중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졌다. 아프리카에 산다는 검은발펭귄을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던 이현주(14) 양은 "정말 즐거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웃었다.

4D체험관이 있는 아쿠아리움은 여수엑스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이다.

해양문명도시관에서는 바다와 함께 시작된 인류 문명의 역사와 미래를 배울 수 있다.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니는 미래의 해중주택 모형.

오후 4시 | 나만의 주제 정해놓고 '고고씽'

하루에 다 못 보는 규모… 알짜만 골라 보세요

2백71만제곱미터 전시장에 1백4개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박람회를 하루 만에 다 구경할 수는 없다. 효율적으로 기억에 남는 관람을 하려면 나만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수엑스포 전시장은 크게 조직위에서 주관하는 전시관과 국제관, 기업관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과 미래라는 주제를 느끼고 배우려면 기후환경관이나 해양문명도시관 등 전시관을, 다양한 문화를 즐기려면 국제관을, 첨단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면 기업관을 중심으로 돌면 된다.

남극의 눈보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기후환경관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펼쳐지는 남극 풍경에 차가운 바람, 관람객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가운데도 아이들은 "신난다"며 뛰어다녔다. 전북 진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전시관을 찾은 김민정(11) 양은 "차가운 남극 바람을 맞다가 북극곰이 죽어 가는 영상물을 보고 나니 추운 곳인데도 남극과 북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후환경관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해양문명도시관에서는 실물 크기의 난파선 모형 안으로 들어가 바다에 가라앉은 옛 문명을 관람할 수 있다. 난파선 안에서 바다를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국가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나면 크지 않은 난파선이 여느 박물관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관람 코스를 따라 펼쳐지는 해중도시와 해중주택은 어릴 적 꿈꾸었던 미래 기술을 눈앞에서 확인할 기회다.

더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체험하려면 국제관에 가면 된다. 국제관 50개를 다 돌아볼 계획으로 찾았다는 일본인 나카야마 마치코(41) 씨는 "마치 세계일주를 하는 기분이 들어 즐겁다"며 "해상매립지를 소개하고 정원을 마련해 둔 싱가포르관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털어놨다.

기업관에 들르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롯데관은 관람객을 위해 전시관의 콘셉트를 '체험'으로 잡았다. 1층에서 펼쳐지는 공연에는 공연단이 관람객의 손을 잡아 이끈다. 개구진 공연단의 장난에 함박웃음을 터트리던 관람객들은 2층 열기구 체험관을 나서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마치 4D 영화관에 온 듯 시원한 바람과 흔들리는 바닥, 펼쳐진 바다풍경을 같이 관람하던 인하대 해양과학과 최중기 교수는 "기업관에도 관마다 특성이 있어 재미있다"고 설명했다.

대우해양로봇관은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기 전시관 중 하나다. K팝에 맞춰 춤추는 로봇팀, 6.5미터의 키로 세계 최장신인 로봇 네비 등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다. 맨 마지막까지 남아 관람하던 송현(12) 군은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며 꿈을 야무지게 밝혔다.

관람객들이 대우해양로봇관에서 K팝에 맞춰 춤추는 로봇팀을 보고 있다.

여수 엑스포 하루 관람 추천코스

- 오전 8시35분 용산역(KTX)
- 11시33분 여수엑스포역
- 오후 12시 점심식사
- 1시 한국관
- 2시 아쿠아리움
- 4시 국제관
- 6시 저녁식사
- 7시 전시관 또는 기업관 / 7시 30분 빅오 해상무대 공연
- 9시 빅오쇼 / 9시 50분 여수엑스포역(KTX)
- 11시15분 여수엑스포역(새마을호)

AM 8:00 9:00 10:00 11:00 PM 12: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오후 6시 | 맛집·거리공연 등 찾는 재미 '쏠쏠'

배도 고픈데 색다른 음식 먹어볼까

한국관과 아쿠아리움을 관람하고 나서 다리를 펴고 쉴 겸 간식거리를 찾으려면 국제관으로 가면 된다. 국제관 곳곳에는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나 스낵바가 있다.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한곳에서 여러 국가의 음식을 맛보는 재미가 바로 여수엑스포를 즐기는 세번째 방법, 숨은 즐길거리를 찾는 것이다.

2년 전 친구를 따라 싱가포르에 갔다가 먹어 본 칠리크랩의 맛을 잊지 못하는 기자에게는 싱가포르관의 스낵바가 적격이다. 칠리크랩과 바게트빵이 함께 나오는 메뉴는 1만4천원.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카야토스트(4천원)나 오믈렛 샌드위치 로티존(4천원)으로 가볍게 허기를 달랬다.

벨기에관에서는 단맛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벨기에관 한가운데서 초콜릿 장인이 직접 만들어 전해 주는 초콜릿이나 도우미들이 나눠 주는 과자를 먹어도 벨기에 스타 셰프 브느와 겔스도르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흐르는 달콤한 향을 뿌리치기 어렵다. 주혜영 팀장은 "벨기에 전통음식인 양파와 맥주로 만든 소스를 돼지고기에 끼얹은 카르보나드(2만5천원)나 크림소스를 얹은 닭요리인 워터주이(2만5천원)를 먹으러 찾아오는 외국인이 많다"고 자랑했다.

벨기에의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달콤한 리에주 와플을 맛볼 수 있다(왼쪽). 엑스포장 곳곳에서는 각국의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엑스포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공연도 놓치면 안 된다. 93일간 날마다 진행되는 '국가의 날'을 맞아 각국에서 준비한 문화공연을 즐기는 것도 엑스포의 또 다른 재미다.

오후 7시 | 귀가길 KTX탈까 새마을호 탈까

빅오쇼 보려면 새마을호 타는게 좋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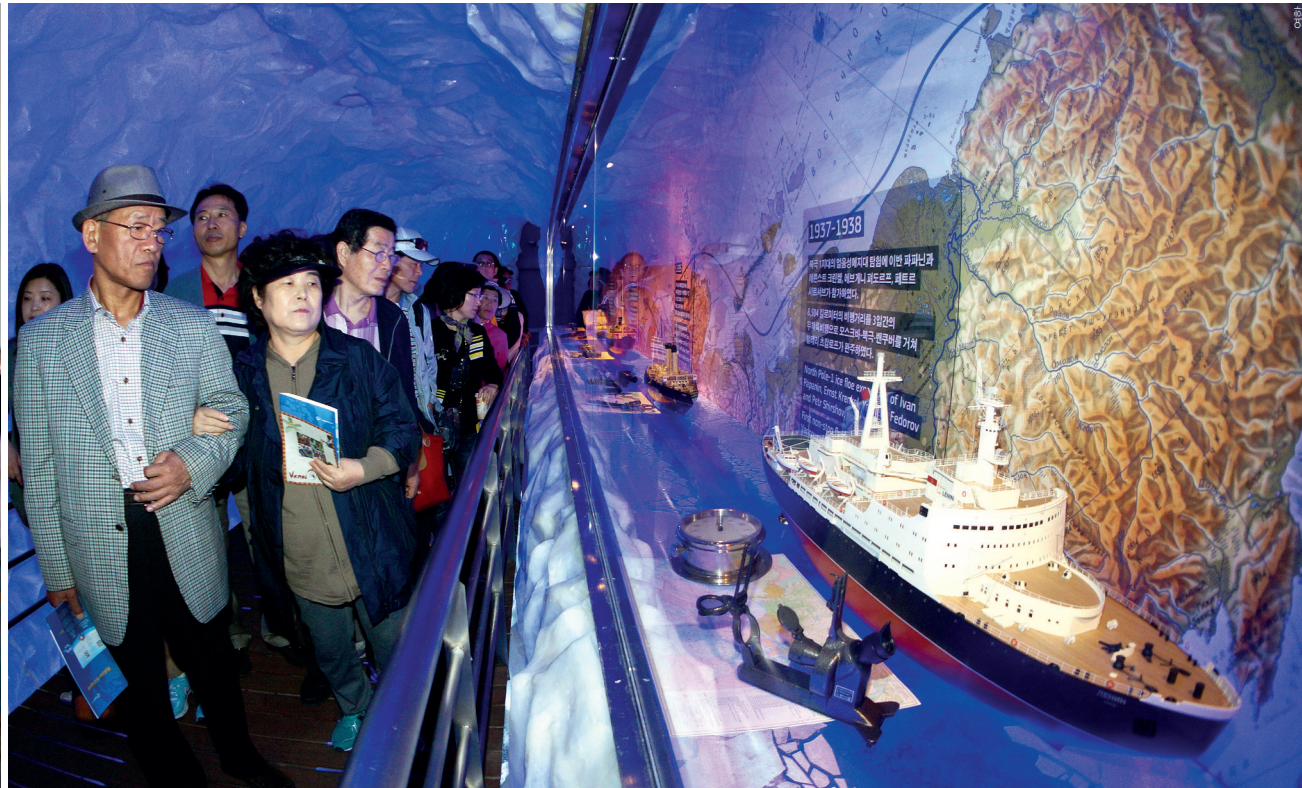
여수 밤바다를 물들이는 것은 오후 9시30분 열리는 빅오의 레이저쇼다. 그런데 서울로 가는 KTX 막차는 오후 9시에 있다. 오후 7시30분 펼쳐지는 빅오 해상무대 공연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지만 오후 11시15분 새마을호를 타더라도 빅오쇼를 관람하는 것이 좋다. 빅오쇼는 여수엑스포가 세계 곳곳에 알리려는 환경과 기술을 대표하는 공연이다.

빅오쇼는 여수엑스포의 자랑거리다. 화려한 레이저 영상(왼쪽)이나 여러 모양으로 발사되는 분수(오른쪽)는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한 시간 전부터 들어차기 시작한 해상무대 관람석은 공연 30분을 앞두고 만원이 됐다. 공연은 오랜 시간 지구를 지켜 왔지만 파괴되는 바다, 바다를 지키려는 인류의 노력과 밝은 미래를 화려한 볼거리로 피부에 와 닿게 꾸며졌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레이저로 화려함을 더하더니 디오(The O) 상단부에서 흘러내리는 수막을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그림은 절로 감탄사를 끌어낸다. 다녀간 관람객마다 입을 모아 "빅오쇼를 꼭 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빅오쇼가 끝나면 여수엑스포는 긴 하루를 정리하는 발걸음으로 분주해진다. 엑스포장은 11시에 문을 닫으니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구경하지 못했던 상점에 들러 기념품을 사거나 못다 느낀 여수 밤바다의 정경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G

글과 사진·김효정 기자

벽에 산호가 장식돼 있어 바닷속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필리핀관. 필리핀에서 가져온 모래도 비치되어 있어 직접 만져볼 수 있다.

러시아관에서 관람객들이 얼음동굴처럼 꾸며진 통로를 걸으며 전시물을 보고 있다.

카타르관에서 카타르의 전통 민예 등을 시연하고 있다.

3만3천원으로 1백4개국 '세계일주'

46개국은 개별 · 나머지는 공동 전시관… 개성있는 전시물로 관객 몰이

엑스포의 꽃은 국제관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풍물과 정보를 한 곳에서 둘러볼 수 있다. 규모도 전체 엑스포장 중 가장 크다. 서울 코엑스의 3배 크기다. 이번 여수엑스포에는 1백4개 나라가 참여했다. '입장료 3만3천원'으로 1백4개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셈이다.

여수엑스포에 참가한 1백4개국 중 46개국은 개별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나머지 국가는 공동 전시공간을 꾸렸다. 국제관 중 눈에 띄는 전시관을 특장점별로 나눠봤다.

교육 콘텐츠 풍부

독일관 등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박물관'

독일관은 '해양 자원 탐구'를 주제로 한 '작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찬 콘텐츠를 자랑한다. 특히 망간 단괴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형 등이 흥미롭다. 각 모형에 가까이 가면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돔 모양의 작은 영화관에서는 해저 세계를 다룬 영상을 틀어주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여수엑스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오선자(54·서울)씨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쉬는 시간 틈틈이 전시관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독일관이 전시물도 좋고 설명도 꼼꼼해 좋았다"고 했다.

스위스관의 주제는 '물'이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동굴을 지나가면 빙하 시대를 연상케 하는 공간이 나온다. 한쪽에는 '빙하' 기둥이 세워져 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생성된 빙하를 채취해 전시관으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관에서는 돌고래를 비롯한 해양생물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생히 관찰할 수 있다. 바다 생물과 함께하는 모습을 벽에 있는 대형 화면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백미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다.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해 바다거북을 살리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인데, 어린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와 유소년 관람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데다 재미도 있다.

중국관에서 상영하는 애니메이션도 재미있다. 중국관이 마스코트로 내세우는 '중국 흰돌고래'와 꼬마 소녀 '니니'의 우정을 통해 돌고래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애니메이션 상영이 끝난 뒤에는 짤막한 공연도 펼쳐진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모티브로한 공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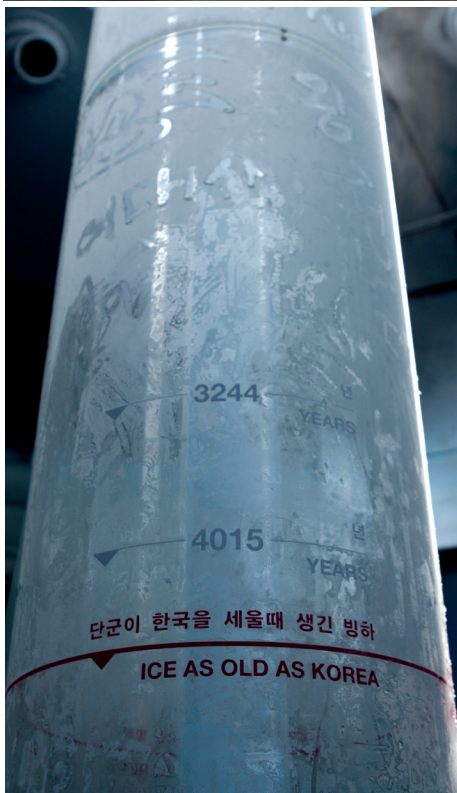
중국관을 관람한 김영욱(23·서울)씨는 "엑스포의 주제로 '바다'를 다루는 것이 좋았다"며 "과거 불법 조업을 하곤 했던 중국이 전시를 통해 돌고래를 보호하자고 하는 점이 인상깊었다"고 했다.

화려한 볼거리

러시아·스페인관 등 아름다운 조형물

러시아관에는 볼거리가 많다. 전시관 내 구획과 구획 사이 이동공간은 마치 빙하 속을 걷는 것처럼 꾸며놓았고, 영상이 상영되는 공간은 쇄빙선 내부처럼 장식했다. 쇄빙선이 얼음을 뚫고 북극을 탐험하는 모습을 입체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얼음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쇄빙선을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기는 아이들에게 인기다.

스페인관은 '스페인 탐험'이라는 주제 아래 스페인의 해양 탐사 역사를 아름다운 디자인의 모형물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해양조사선 '헤스페리데스(Hesperides)'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수심 5천미터의 심해 바닷물을 담아놓은 6백40개의 표본 튜브는 예술작품 못지않게 아름답다. 표본 뒷면에 있는 스크린에는 심해에 사는 해파리, 발광생물의 이미지가 비쳐 전체적으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모나코관에 들어서면 플라스틱병, 컵 등 재활용품으로 만든 '블루 리본'이 눈에 띈다. 블루 리본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모나코의

1 인도관에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인도의 노력과 함께 인도의 전통문화도 알 수 있다.
2 스위스관에서 볼 수 있는 빙하 기둥.
3 중국관에서는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본 후 짧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사회 참여를 상징한다. 전시관 곳곳에는 바닷속 생태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해저 1만미터의 심해에서 촬영한 해양 생태계 영상이 흥미롭다.

체계적인 전시

덴마크·싱가포르관 전시물·디자인 세련

덴마크관은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다양한 전시물로 표현해 놨다. 풍력 에너지가 전기로 활용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모형물과 바닷물을 식수로 정수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전시물이 눈에 띈다.

싱가포르관은 네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공간이 모두 독립된 예술작품처럼 아름답다. 환경 보호를 향한 싱가포르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을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잘 표현했다. 특히 물방울 하나가 싱가포르의 도심 풍경과 정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입체 영상에서는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풍성한 전통공연

터키·독일·태국 등 다양한 공연 인기 높아

국제관 중에는 시간을 잘 맞춰서 방문하면 각종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미리 공연 시각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그 나라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다.

터키관에서는 음악 공연과 미술 콘퍼런스가 열린다. 자세한 날짜와 시각은 터키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독일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열린다. 일정은 독일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국관 앞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그 앞에는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태국인 모습을 한 대형 조형물이 서 있다. 일정 시각이 되면 조형물 옆에서 태국 전통 공연이 열리는데 인기가 많다.

국제관 관람 소요시간은 평균 20분에서 30분이다. 전시관 내부는 냉방이 잘돼 있어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경우 추위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영상물을 상영하는 전시관의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겉옷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박람회장에서 파는 여수엑스포 전용 '여권'을 사는 것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각 국제관별로 비치된 스탬프(도장)를 찍어 '나만의 세계여행 여권'을 완성해 보자.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G

글·하주희 기자

터키관 expoyeosu2012turkey.com
독일관 www.expo2012-germany.com

자오전거(趙振格) 중국관 관장

"안내 도우미들 모두 한국어에 능통해요"

중국은 조직위원회로부터 참여국 중 가장 빨리 전시관 '열쇠'를 건네받았다. 작년 11월의 일이다. 사전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것이 올해 1월. 1백4개 참여국 중 가장 빨랐다. 자오전거 관장은 "엑스포를 계기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엑스포의 주제에 맞춰 전시관의 주제를 해석하고 표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2년이 걸렸다. 올해 1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올해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다. 뜻깊은 해에 개관한 전시관인데, 목표하는 전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중국과 한국이 국교를 맺기 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서울에 사무소를 세웠다. 한·중 무역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였다. CCPIT는 중국 정부를 대표해 세계 각지의 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조직이다. 이번 여수엑스포 전시관도 CCPIT와 중국해양국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중국의 해양자원과 해양문화, 과학기술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해양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도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중국관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면?

엑스포 기간에 중국의 11개 성, 자치구를 초청해 문화공연을 열 예정이다. 또 중국관을 안내하는 도우미들은 모두 한국어에 능통하다. 이들에게 궁금한 것도 질문하면서 중국관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다.

테리 하트만 서울국제여성협회 회장

"전시장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인상적"

1백4개국이 참가하는 박람회답게 여수엑스포에는 외국 국적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서울국제여성협회(SIWA)도 그중 하나다. 테리 하트만(Hartman) 회장은 "박람회장이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소감을 말했다.

SIWA를 소개한다면?

1962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순수 비영리단체다.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의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고, 바자회 등을 통해 기금을 모아 기부 사업도 하고 있다.

여수엑스포에 온 소감은?

전시장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인상적이었다. 국제관과 다른 전시관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시물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이 정도로 과학 기술이 발전했구나' 감탄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여수엑스포에 방문하고, 여수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

서철인 기자
여수엑스포 정문에서 안내 겸 통역 봉사를 펼치고 있는 파독 간호사들. 왼쪽부터 윤행자씨 남편 페터 피셔, 김정자, 김현진, 지화순, 설경자, 윤행자씨. 윤영자씨는 사정상 빠졌다.

"더 늙기 전에 고국으로 봉사하러 왔어요"

파독 간호사 6명 "40여 년 전과는 달리 자부심을 갖고 독일 가게 됐다"

1960~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 6명이 여수엑스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다. 정년퇴임 후 독일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독간호협회 회원들이다. 협회장을 맡고 있는 윤행자씨는 독일인 남편과 동행했다. 개막 때부터 여수엑스포 정문과 3문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양호교사였던 윤행자(70)씨는 1969년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는 어린 남매를 위해 파독 간호사 1기로 먼길을 떠났다. 윤씨는 쾰른 근처 보쿰의 한 병원에 배정돼 43년 동안 근무했다. 그 사이 독일 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수간호사 시험에 외국인 최초로 합격했고, 현재의 남편 페터 피셔(75) 씨를 만나 결혼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할 때 각자 데리고 온 4명의 자녀가 있다.

윤씨는 "네 아이 모두 대학 졸업 후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데리고 간 남매 중 아들은 현재 LG연구소에 근무 중이고, 딸은 독일에서 사업가로 살고 있다. 윤씨는 "딸아이는 88올림픽 당시 연세대에 유학하며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자랑했다.

여수 여행 중 봉사자 모집 현수막 보고 지원

한·독간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진(65)씨는 청주간호학교에 재학 중이던 1967년 독일로 갔다. 다른 회원들과 달리 유학을 떠난 김씨는 쾰른에 있는 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그곳에 있는 인공투석 전문병원에서 2009년까지 간호부장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1970년 현재의 남편 한스 페이터 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아들은 독일계 화학기업 랑세스(LANXESS)에 근무 중이다.

두 사람 외에 설경자(59), 윤영자, 김정자, 지화순씨 등이 함께 박람회장에서 안내 겸 통역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5월 1일 귀국해 수차례의 예행연습을 마친 후 현장에 투입됐다.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로 나서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부회장인 김씨의 답변이다.

"제가 한국에 자주 오는 편이에요. 지난해에도 방한했는데, 여수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 모집' 현수막을 봤습니다. 협회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독일로 돌아가 회원들에게 얘기하니 모두가 '더 늙기 전에 고국에 가서 봉사하자'고 흔쾌히 동의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력 40년 이상의 베테랑 간호사들이다. 박람회장 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할 만반의 준비도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심장내과에서 근무한 김정자씨는 "응급처치에 자신 있지만 엑스포가 끝날 때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독일 돌아가서도 한국 홍보 위한 봉사할 것"

협회장인 윤행자씨는 남편과 함께 왔다. 남편 페터 피셔 씨는 독일 기술학교(2년제 대학) 교수 출신이다. 그는 "아내 못지않게 한국과 김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며 웃었다. 이번 엑스포에 대해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IT기술에 다시 한 번 놀랐다"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동시에 "시설과 기술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나 뒷마무리가 꼼꼼하지 못한 게 아쉽다"는 애정 어린 지적도 잊지 않았다. 서둘러 공사를 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에서 허점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파독 간호사들은 5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6월 초에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행자 회장은 "이번 엑스포 덕분에 파독 간호사로 떠나던 40여 년 전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갖고 독일에 가게 됐다"며 "독일에 돌아가서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임원으로 활동 중인 한·독간호협회는 2009년 독일 루르 지방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70여 명이 친목 단체로 결성했다. 본, 쾰른, 보쿰 등에 흩어져 사는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독일에 거주하는 나이 든 한인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추석이나 설과 같은 독일의 명절 때면 강강술래나 풍물놀이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김현진 부회장은 "독일 전역에는 현재 2천여 명의 파독 간호사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분들과 힘을 합해 앞으로도 고국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국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G

글·서철인 기자

한국해양대학교 프랑스 교환학생 엘로디

"한국문화 중 가장 먼저 배운 게 情"

김효정 기자

여수엑스포 해양문명도시관에 가면 프랑스에서 온 대학생 엘로디(25)가 환한 미소로 관람객을 맞는다. 프랑스 파리의 대학에 다닐 때 일본어를 전공했다는 엘로디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와 겨우 7개월이 지났는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한다.

한국말을 잘하네요. 따로 배웠나요?
원래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일본 TV 방송이나 신문을 자주 봤는데 우연히 아이돌그룹 빅뱅의 영상을 봤어요. 그 후로 엄청난 팬이 돼서 공부하던 일본어도 팽개치고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한국말을 공부하다 보니 한국 문화가 좋아졌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엘로디를 매료시켰죠?
한국 문화 중에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정(情)이에요. '정'이라는 발음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어요.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친구들이 와서 걱정해 주는 데 따뜻함을 느꼈어요. 여기서도 제가 한국말을 하면 할머니들이 좋아하면서 물도 주고 먹으라고 과일도 줘요. 마음이 무척 따뜻해요.

엑스포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교수님이 소개해 줬어요. 방학 때 프랑스에 가족들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남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싶어서요. 엑스포는 프랑스에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큰 행사인데 참여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한국에 와서 여러 기억이 많은데 여수가 제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꼽는다면.
프랑스관에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줘서 저도 기뻤어요. 제가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오면 반갑고 좋아요. 제가 아는 한국 문화와 사람에 대해 많이 얘기해 줬어요.

글·김효정 기자

엄마 아빠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여수엑스포를 관람하러 온 장명근·유경 남매가 어선에 올라 어구들을 만져보고 있다.

오감 충족… 여수는 웃음소리에 시끌벅적

소라·미역도 만지고 모형어선도 타고… 예약 없어도 관람 가능

소라, 멍게, 미역 등 우리 바다에 사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고 만지는 재미에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모형 참치잡이 어선에 승선한 가족은 거친 파도와 폭풍우에 멀미가 난다고 야단이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물대포를 발사하는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푸른 창공을 가른다. 여수엑스포에는 찾아보면 오감이 충족되는 체험거리가 많다.

"오빠, 이것 봐. 딥따 큰 조개야."

"이건 불가사리다? 너도 만져볼래?"

장명근·유경 남매는 책이나 TV로만 보던 바다생물을 신기해하며 만져보느라 정신이 없다. 엄마 아빠가 "그만 가자"고 해도 듣는 척 마는 척이다.

바다숲·연안어업체험장

"살아 있는 불가사리는 처음 만져봤어요"

"아저씨, 이건 뭐예요?"

명근이가 미역 줄기에 달라붙어 있는 연체류 생물을 가리키며 묻자 곁에 있던 안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응, 이건 군소라는 거야. 민달팽이처럼 생겼지? 바닷속에서 해초를 먹고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바다의 토끼'라고 부른단다. 겁내지 말고 한 번 만져 봐, 오징어나 문어처럼 아주 부드럽단다."

명근이는 조심스럽게 살짝 만져봤고, 유경이는 "징그럽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곤 엄마에게 "엄마, 여기 달팽이 있어"라며 소리쳤다.

명근·유경 남매는 안양동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남매의 엄마 한낭순씨는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했다"며 "휴가철에는 붐빌 것 같아 서둘러 왔다"고 말했다. 남편 장응수씨까지 네 식구는 박람회장 내 주요 전시관을 모두 관람했다. 명근이에게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고 물으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라고 답했다. "살아 있는 불가사리를 처음 만져보았다"며 "사람 피부처럼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까칠까칠해서 깜짝 놀랐다"는 생생한 소감도 전했다.

호기심 많은 명근이와 유경이를 매혹시킨 전시관은 바다숲·연안어업체험장이다. 박람회장에서 오동도로 가는 방파제 중간 바다 쪽에 위치해 있으며, 엑스포 주제관에서 도보로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다.

이곳에는 연안어선과 미나양식장 등 거문도 어민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과 해양 생태계의 과거·현재·미래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명근이와 유경이는 실제 어선에 올라 각종 어구와 장비들을 만지며 놀았다. 양식장에서는 방어, 참돔, 농어, 전어 등의 물고기 외에 전복, 석화, 홍합 등의 어패류도 보았다.

한씨는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주요 전시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오길 잘했다"고 말했다.

원양어업체험장

"멀미 난다며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와아~!"

남태평양으로 향하는 원양어선이 폭풍우를 만나 심하게 흔들리자 아이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백파(참치떼가 일으키는 물보라)를 따라 남태평양에 도착하자 안내원은 "우리나라 참치의 90퍼센트를 이곳 남태평양에서 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곤 "방금 우리가 잡으러 간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며 퀴즈를 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저요, 저요"를 외쳤다. 정답을 맞춘 아이에게는 원양어선의 키를 잡고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참치잡이 어선이 여수엑스포 앞바다에서 남태평양에 이르는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케 하는 이곳은 여수엑스포 원양어업체험장이다. 기업관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모형으로 제작된 배에 승선해 15분가량 가상 체험을 하고 나면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곳 안내원은 "고객 중에는 배멀미가 난다며 중간에 나간 분도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파크

다양한 놀이식 시설… 아이들에 인기 급상승

원양어업체험관에서 나오면 정글짐 모양을 한 형형색색의 시설물이 눈에 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체험시설(8만3천1백21제곱미터)이 갖춰진 이곳은 에너지파크다. 에너지 생산시설(태양광발전소), 에너지체험시설, 온라인전기버스 운행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햇빛, 물, 파도, 바람 등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미로게임', '자전거 물대포', '에너지 오케스트라', '바람 페달', '재활용 로켓' 등 다양한 놀이식 체험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상승 중인 전시관이다.

이곳에서 신나게 체험 중인 수원 매여울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만났다. 채율리, 전예림, 조수연 양은 페달을 밟으면 물대포가 발사되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었다. 소녀들 특유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물레방아가 수력발전소 원리와 같다"는 안내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수학여행 코스로 이곳에 왔다는 아이들은 한목소리로 "다음에는 엄마 아빠랑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G

글과 사진·서철인 기자

모형 어선 모양의 원양어업체험장에서는 여수엑스포 앞바다를 출발한 배가 남태평양에 이르는 가상 항해를 15분 동안 체험할 수 있다.

에너지파크에는 놀이식 체험시설이 가득하다.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다 보면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의 원리를 깨칠 수 있다.

전시관 예약하면? 줄서지 않고 입장해요!

주제관 등 8곳 예약제 운영… 예약 땐 입장권 고유번호 필요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어요." 대형 행사를 치를 때마다 나오는 불만이 이번 여수엑스포에서는 사라질 전망이다. 주제관, 한국관, 해양로봇관, 기후환경관, 해양문명도시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등 8개 주요 전시관이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들 전시관 정원의 30%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70%는 스마트폰과 박람회장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예약으로 배분됐다. 단 오후 6시 이후에는 아쿠아리움을 제외한 7개 전시관은 예약 없이도 입장이 가능하다.

하루에 두 곳만 예약 가능… 신중히 선택해야

조직위원회는 예약제가 "과도한 대기시간과 관람객의 혼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5월 14일 여수엑스포 내 아쿠아리움 앞에서 만난 박재은(24)씨는 "3시 예약을 해 둬서 다른 전시관에 들렀다가 2시50분쯤에 도착했다"며 "관람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 원하는 만큼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전시관 예약을 위해서는 입장권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박람회장 입장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희망 관람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로는 불가능하다.

여수엑스포에서는 주제관 등 주요 8개관을 예약제로 운영한다. 전시관 예약은 박람회장 곳곳의 미디어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남은 정원과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권을 샀다면 곧바로 원하는 전시관을 예약하도록 하자. 하루에 두 곳까지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고 싶은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G

글과 사진·김효정 기자

전시관 예약방법

대상 전시관 : 주제관, 한국관, 대우조선해양로봇관, 기후환경관, 해양문명도시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예약제 운영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단, 아쿠아리움은 종일 예약제로 운영

예약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expo2012.kr), 스마트폰 앱 'EXPO 2012', 박람회장 내 '미디어 키오스크'

예약 횟수 : 하루 2곳까지 가능

사전 예약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www.expo2012.kr 접속
스마트폰 앱 'EXPO 2012' 다운로드

↓

입장권 고유번호(15자리) 입력 혹은
QR 코드 인식 (동반자 19명까지 추가 입력 가능)

↓

관람희망 전시관, 예약시간 선택

현장 예약 방법

스마트폰 앱 'EXPO 2012' 다운로드 후 예약 혹은
가까운 '미디어 키오스크'로 이동

↓

화면에서 예약 가능 전시관 확인
(시간 선택 불가능, 선착순으로 관람시간 지정)

↓

오른쪽 하단에 입장권 태그

↓

입장확인표 수령 후 전시관으로 이동

8개 앱 다운로드… "엑스포가 내 손에 쏙"

입장권 예매·전시관 예약은 물론 행사·관광정보도 한번에 OK

여수엑스포를 즐기는 첫번째 준비단계는 바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앱은 8개다. 조직위원회 U-IT부 이은경 팀장은 "모든 앱의 궁극적인 목표는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이 관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엑스포장 안에서도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엑스포(Expo) 2012

여수엑스포의 통합포털앱이다. 7개의 앱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 모든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약 및 예매' 카테고리의 '입장권 예매'에서는 스마트폰으로도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 전시관을 예약하려면 입장권 번호가 필요하므로 사전 예매는 필수다.

전시관 예약

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예약제를 도입한 8개 전시관의 예약을 돕는 앱이다. 회원가입을 하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엑스포 투어(Expo tour)

전시관 소개, 위치 정보, 추천 관광코스 및 문화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추천 관광코스'에는 '1박2일 코스' '바다를 중심으로 한 동선' '연인들을 위한 동선' 등 다양한 코스가 소요시간과 대기시간을 포함해 제공된다.전시관에 가기 전 전시관 정보와 위치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은 기본이다. 엑스포 투어 앱만 있으면 엑스포장 안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각종 문화행사 정보를 확인한 후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도 즐겨 보자. 공연을 구경하다 다음 관람할 전시관의 대기시간이 궁금하다면 '전시관 소개' 메뉴를 눌러 보면 된다.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다.

남해안 즐겨찾기

여수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남해안 지역까지 관광하고자 할때 필요한 앱이다. 엑스포장 부근의 맛집, 숙박시설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다만 가격 등의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화나 홈페이지로 확인해야 한다.

'엑스포(Expo) 2012' 앱. '엑스포 투어' 앱.

엑스포 즐기기

엑스포장의 혼잡도를 분산시키고 관람객이 다양한 시설을 관람할 수 있게 조직위가 아이디어를 짜냈다. '엑스포 즐기기' 앱에는 미션이 제시돼 있다. 인기 전시관과 비인기 전시관을 묶어 관람하면 높은 점수를 얻는데 매달 순위를 정해 아이패드 등 경품을 증정한다.

증강현실을 이용해 엑스포장을 스마트하게 즐길 수도 있다. '캐치캐릭터' 메뉴를 실행하면 엑스포장 곳곳에 숨어 있는 캐릭터들이 보인다. 스마트폰 안으로 '캐치'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엑스포(uExpo) 친구찾기

가고 싶은 전시관이 일행과 다르다면? 각자 알아서 움직이면 된다. '엑스포 친구찾기' 앱이 있으면 서로의 위치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위치찾기 서비스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엑스포(Expo) 통역 비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의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음성입력도 가능하다.

환승주차 정보

승용차로 여수에 도착한 관람객에게 꼭 필요한 앱이다.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G

글·김효정 기자

일러스트 · 유재일

가족은 농어촌 민박… 친구끼리 마을회관

값싸고 이색적인 대체숙박지 많아… 템플스테이 · 처치스테이도 가능

여수엑스포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이 준비돼 있다. 비싼 숙박비가 부담된다면 대체숙박을 고려해 보자. 57개의 마을회관, 50개의 농어촌체험마을에서 민박을 이용하거나 여수시 캠핑장이나 전남대, 순천대 등 대학 기숙사에서 묵을 수 있다. 흥국사와 향일암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여수지역 1백39개 교회에서는 처치스테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한다.

여수엑스포만 보기에는 남해안의 아름다운 경치가 아쉽다. 하룻밤 정도 머물면서 엑스포와 주변 관광지를 묶어 여행하고 나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가실지도 모른다. 여수엑스포 주변에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여수에서 차로 2시간 거리를 숙박권역으로 설정하고 6백14개소, 1만8천여 실의 엑스포 공식 숙박업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특급호텔도 11곳, 1천2백38개실이 있어 여느 대도시 못지않은 규모를 갖췄다.

엠블호텔 여수(061-660-5800)는 2012년 3월에 오픈한 전남지역 최고급 호텔로서 여수엑스포 기간 주요 인사들이 투숙하는 VIP 공식 숙박 호텔이다. 히든베이호텔(061-680-3000)이나 베니키아호텔(061-662-0001)도 특급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한다. 여수엑스포 공식 홈페이지(www.expo2012.kr)의 '관광 숙박' 카테고리에서 호텔과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 정보를 열람하고 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성수기 요금이 제시되는 숙박시설은 하룻밤 묵기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박람회장에서 멀지 않은 숙소를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대체숙박 시설을 알아보면 된다.

엑스포 기간에 여수지역 마을회관 57곳이 1인당 8천원의 요금으로 장소를 빌려준다. 취사가 가능한 곳도 많고 곳에 따라 부녀회 등에서 마련한 식사도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하룻밤 지내기에 좋다.

단체로 숙박하는 마을회관이 불편하다면 농어촌 체험마을의 민박집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50개 농어촌 체험마을의 민박집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좋은 선택이다. 하룻밤에 7만원에서 10만원을 내면 된다. 특히 한옥 민박이 있는 상관마을은 순천만, 여자만 등 관광지 접근이 용이하고 한국적 정취가 남아 있는 곳이라 기억에 남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따뜻해진 날씨에 캠핑장 이용도 좋은 추억

최근에는 종교시설에서 묵는 사람도 많다.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흥국사나 향일암은 엑스포 기간 중 저렴한 비용(흥국사 1인당 3만원, 향일암 1인당 1만원)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투숙자들은 저녁 혹은 새벽 예불에 참가해야 하는데 여수 밤바다를 깨우는 목탁 소리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할 수 있다. 여수지역 1백39개 교회에서 진행하는 처치스테이 역시 하룻밤에 1인당 1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무료나 다름없다.

따뜻해진 날씨에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경도오토캠핑장과 굴전여가캠핑장, 웅천 친수공원 등에 마련된 캠핑장을 선택할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경도에 있는 경도캠핑장이나 돌산도의 굴전해안 앞에 자리 잡은 굴전캠핑장에서는 바다가 바라보인다.

웅천 친수공원 캠핑장 역시 청정해역인 가막만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캠핑트레일러를 빌린다면 7만원(주말 8만원), 캠핑장소만 대여한다면 2만원(주말 2만5천원)에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G

글 · 김효정 기자

숙박시설 이용 정보

엑스포 공식 숙박업소 정보 여수엑스포 홈페이지(www.expo2012.kr) → '관광숙박'

대체숙박 정보 여수엑스포 홈페이지(www.expo2012.kr), 여수시 홈페이지(www.ystour.kr)

마을회관 숙박 안내 여수시 건설과(☎061-690-2529)

템플스테이 안내 흥국사(☎061-685-5633), 향일암(☎061-644-4742)

처치스테이 안내 여수기독교총연합회(☎061-682-9233)

여수 상관마을 마을회관 체험기

현대식 시설 갖춘 전남도 지정 '행복마을'

사진 이 기자

빅오쇼를 관람하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한옥 민박이 있는 상관마을에 도착했다. 여수엑스포역에서 택시요금이 1만원 정도 나오는 거리지만 막히는 길이 아니라 금방 도착할 수 있다. 곳곳에 서 있는 한옥들이 봄 밤의 운치를 더하는 마을이다.

상관마을은 2009년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낡은 시골집을 한옥으로 고쳐 짓고 민박이나 체험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촌개발에 힘쓰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관마을은 뒷산인 안심산 정상에서 여수시내를 굽어볼 수 있고 여자만, 순천만 등 관광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쾌적의 위치라 농촌체험마을로 개발 중이다.

현재 황토벽돌과 나무로 지은 한옥 민박이 열 채 영업 중이다. 엑스포 기간에는 마을회관에 묵을 수도 있다. 1인당 8천원이라는 저렴한 숙박비에 부녀회에서 마련한 아침식사까지 나온다.

지난 5월 12일에는 일본인 10명이 찾아와 묵기도 했다. 직접 찾아와 주변을 샅샅이 탐색하더니 '한옥이 멋스럽고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며 머물렀다고 한다.

상관마을 김정옥(58) 이장은 "한옥 민박이 한옥이지만 현대식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도시 사람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마을 관광상품을 개발해 여수 관광의 거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상관마을 한옥 민박에서 묵으려면

숙박비 엑스포 전 기간 2인 기준 7만원(1인 추가시 1만원 추가) **홈페이지** www.happyvil.net **대표전화** ☎061-282-5327 **교통편** 여수터미널에서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버스 이용(30~40분 소요)

승용차를 가지고 여수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은 환승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승주차장 옆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관람객들이 셔틀버스에 오르고 있다.

침대열차 부활… 도전~ 무박2일!

승용차 이용 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하면 환승주차장 바로 안내

많은 사람이 여수 박람회장을 찾고 있지만 잘 정비된 도로와 쾌적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때문인지 우려했던 교통혼잡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주최 측은 철도, 배, 비행기, 승용차 어떤 수단을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했다. 선택은 관람객의 몫이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부활한 침대열차나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보는 것도 여행의 색다른 재미를 더해주지 않을까.

철도

용산~여수 2시간57분… 주중 16·주말 20회 운행

여수엑스포로 가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은 역시 열차다. 여수엑스포역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오면 정면에 박람회장 입구가 보인다. 3번 입구(게이트)다. 역에서 걸어서 2~3분이면 닿는다.

열차 중에서도 특히 KTX가 편하다. 원래 전라선 KTX는 용산역에서만 운행하지만 이번 엑스포 기간에 한해 서울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임시 운행편이 오간다. 약 3시간 만에 서울에서 여수로 갈 수 있다. 용산역에서는 2시간57분이 소요되고, 서울역에서는 3시간 10분에서 3시간20분이 소요된다. 서대전역에서는 2시간, 전주역에서는 1시간이 걸린다. 박람회 기간 KTX는 증편돼 운행된다. 주중에는 16회, 주말에는 20회 운행한다. 일자에 따라 운행 편수와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운행 시각표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면 좋다.

열차표 예매 시 여수엑스포 입장권을 제시하면 요금을 30퍼센트 할인받을 수 있다. 입장권을 코레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탑승일 이틀 전까지는 열차표 예매를 마쳐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순천역, 여천역, 여수엑스포역으로 가는 표를 끊을 때만 할인된다. **문의** www.korail.com ☎1544-7788

엑스포를 계기로 침대열차도 부활했다. 침대열차는 1969년 도입됐지만 2004년 KTX 운행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면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

밤 11시20분 서울역을 출발 다음 날 새벽 3시48분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한다. 향일암 해돋이, 오동도, 여수엑스포를 관람하고 나서 오후 3시20분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저녁 7시52분에 서울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요금은 여수엑스포 입장료와 교통비를 포함해 서울역 출발 기준 1인당 11만5천원에서 13만원가량으로, 대인과 청소년, 소인용 요금이 모두 다르다. 주말 출발인지 주중 출발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아름여행사 ☎02-722-0419

해운

부산·제주·웅천 등 6곳서 연안여객선 운항

배를 타고 여수를 갈 수도 있다. 부산, 제주, 하동, 남해, 광양, 웅천에서 연안여객선을 타면 된다. 하동군 노량항에서는 1시간, 남해군 서상항에서는 30분이면 박람회장에 도착할 수 있다. 광양시 중마항에서는 1시간, 여수시 웅천항에서는 50분이면 행사장에 도착한다. 자세한 운항 정보는 여수엑스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www.expo2012.kr ☎1577-2012

도로

5개 환승주차장에서 무료 셔틀버스 타고 이동

승용차를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약 4시간가량 소요된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전북 완주~순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기존 소요시간보다 1시간 30분 정도 단축됐다. 부산권에서 출발할 경우 남해고속도로에서 여수국가산단 진입로로 들어서면 2시간30분이면 여수에 닿을 수 있다.

여수에 도착하면 여수시 외곽에 있는 5개의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박람회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셔틀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한다. 환승주차장에서 박람회장까지는 20~35분 정도가 소요된다. 승용차로 여수엑스포로 가려면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놓으면 좋다.

환승주차장이 아닌 시내 곳곳에 있는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도 있다. 여수시내 곳곳에는 48개소의 임시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내의 임시 주차장에 주차한 후 여수시청에서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박람회장 입구까지 갈 수 있다. 셔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경우에는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면 된다. 박람회장까지 10~20분이 소요된다. 박람회 기간에는 여수 시내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www.yeosu.go.kr

항공

김포~여수 55분… 공항버스로 약 30분 걸려

항공편도 이용할 만하다. 박람회 기간동안 김포공항에서 여수공항으로 1일 8회 항공편이 운항된다. 여수까지 55분 가량 걸린다. 여수공항에서 박람회장까지는 공항버스로 약 30분이 걸린다. 박람회 입장권을 가져가거나, 여수엑스포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교통정보 안내 페이지를 출력해 들고 가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임을 30퍼센트 할인받을 수 있다. G 글·하주희 기자

문의 여수엑스포 콜센터 www.expo2012.kr ☎1577-2012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 관장

"시각장애아동도 독서할 수 있게 도와요"

김윤옥 여사가 지난 4월 17일 강동구 암사동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북소리버스'에 올랐다. '2012 독서의 해'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한빛맹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봉사를 펼치기 위한 것이었다. 북소리버스는 시각장애인 대상의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독서장애인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의 독서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썼던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시각장애인 독서환경 개선사업에 힘쓰고 있는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 관장. 사회적기업 '도서출판 점자'도 설립했다.

북소리버스는 책을 싣고 장애아동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버스다. 장애아동을 위한 대체자료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고 버스 안에서는 구연동화, 영어동화, 음악동화, 과학동화, 그림책 상영 등 독서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은 "장애아동에게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북소리버스의 역할이자 한국점자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김윤옥 여사가 참여한 북소리버스는 어떤 행사입니까?

"저희 한국점자도서관이 진행하는 '들려주고 들어주는 그림책방' 행사였어요. 김윤옥 여사는 '북소리버스'에 탑승해 '책 읽어 주는 할머니'가 돼 한빛맹학교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 김 여사께서는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일하는 열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점자도서관 역사관과 음성녹음실, 점자책 제작실을 둘러보기도 하셨고요.

2011년도에도 서울맹학교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부인이 문화 관련 장애기관을 방문해 직접 봉사활동을 펼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북소리버스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북소리버스는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도서관이에요. 2006년 시각장애 아동에게 책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그것을 확장시켜 2008년 6월부터 '북소리버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e-Book' 시대가 열렸다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독서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죠. 독서환경이 열악하니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시각장애 아동은 독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점자도서나 점자도서관이 대부분 성인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북소리버스 운영이나 도서출판 점자를 설립하게 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시각장애뿐 아니라 청각장애, 지적장애인이 독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점자도서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한국점자도서관은 1969년 시각장애인이셨던 저의 선친 고 육병일 관장님께서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으로 우리나라 점자도서관 1호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난 43년 동안 시각장애인의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곳이기도 하고요.

1980년대에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시대를 열었고,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정부간행물 보급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가장 먼저 인터넷 전자도서관을 개관하고 국제적인 디지털토킹북을 도입해 서비스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독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넘어 노환 등으로 독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전 국민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독서장애인'에게까지 독서 서비스를 확대했고, 촉각도서나 묵·점자·혼용도서, 점자라벨도서 등을 개발해 장애아동의 독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자책을 지역도서관에 대여해주기도 한다지요.

"점자도서는 총 6만여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 연 대출 권수는 1만여권, 이용자는 3천여 명 됩니다. 수치로 따지면 실제 도서관 이용률은 오히려 떨어진 편이죠. 그 이유는 도서관 주요 사업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한국점자도서관은 좀 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자책을 대출해 주는 도서관 고유 기능뿐 아니라 각 지역도서관 등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 독서사업을 위한 협약 등을 통해 점자책을 지역도서관에 대여해 주기도 하고 맹학교, 농학교나 지역도서관, 대학도서관과 함께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시각장애인이 점자도서관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지역민으로서 보다 편리하게 지역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도서관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현황과 독서환경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현재 25만명 정도 되지만 독서환경은 아직 열악한 수준입니다. 한국점자도서관이 설립된 이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여덟 군데 정도 점자도서관 법인이 생기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대학도서관 등에 점자도서관이 생기며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성장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점자도서관 내 스튜디오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음성녹음을 하고 있다. 한국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정부간행물 음성서비스도 해 오고 있다.

우선 저희 한국점자도서관만 하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설확장이나 보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독서장애인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2009년 사회적기업 '도서출판 점자'도 설립하셨습니다. '도서출판 점자'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시대는 변했는데, 시각장애인이 보는 책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독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독서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보급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출판 점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출판뿐 아니라 촉감도서를 비롯해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독서할 수 있는 묵·점자 혼용책, 노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책,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한글 혼용책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가꾸고 꿈을 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바우처를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제작이 쉽지 않은 관계로 도서가격이 일반도서에 비해 비쌉니다. 문화바우처가 바우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책을 저렴하게 사서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지급만이 아니라 한층 더 눈높이를 맞춘 현실적인 복지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염동우 기자

정은주 기자

유은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은 38년 전 9급 행정서기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에서 근무하며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전산박사'가 됐다.

9급 고졸 첫 여성 고위공무원 유은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스스로 목표 정해 최선 다하면 길 열려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로 9급 고졸 출신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성 차별, 학력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유은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이 그 주인공이다. 유은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은 '9급 고졸 출신 여성 고위공무원'이 되기에 앞서 이미 1999년 '행정자치부 최초의 여성서기관'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제 이름 유은숙(Yu Eun-Sook)의 영문 이니셜이 YES예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릴 때부터 늘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Yes, I can'을 외치며 다짐하곤 했지요. 아버지께서는 자주 칭찬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아버지의 칭찬이 제 삶의 큰 힘이 되었고요."

지난 5월 초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유은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57)의 말이다. 유 실장은 이번 임명을 통해 중앙 고위공무원(현재 1천5백여 명)에 이름을 올린 '고졸, 9급 출신 최초의 여성'이 됐다. 유 실장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초', '유일'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유 실장은 이미 1999년 11월 '행정자치부 최초의 여성서기관'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은행원서 공무원으로, '주산왕'이 '컴퓨터 공학박사'로 변신

이번 임명은 유 실장 개인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그 의미가 깊다. 한때 '금녀의 구역'으로 일컬어지던 고위공직사회에 여풍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유 실장은 "열정을 가지고 늘 일을 즐기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서울여상 졸업 후 산업은행 은행원으로 일하다 38년 전 공무원 공채를 통해 전 총무처 연금국의 행정서기보(9급)로 공직에 첫발을 들였다.

"행정서기보로 처음 맡은 임무는 공무원 연금급여관리 업무였어요. 퇴직한 공무원들 영수증을 관리하는 단순 업무였지요. 좀 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즈음에 정부에 컴퓨터가 도입됐어요. 그때 부서 과장님의 권유로 컴퓨터를 배우게 됐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산왕'으로 통했던 그에게 컴퓨터는 또 하나의 신세계였다. 컴퓨터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당시 과장님의 배려로 당시 신규직원인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COBOL, FORTRAN 등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흥미를 갖게 됐지요. 매일 밤샘을 하며 프로그램을 짜곤 했는데 그동안 일해 왔던 은행업무나 행정업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처음으로 태동되는 시기였지요."

그 무렵, 행정전산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산직이라는 새로운 기술직군이 만들어졌다. 그는 기꺼이 기술직군인 전산직을 선택했다. 이후 야간 대학에 진학해 낮에는 공무원으로, 밤에는 학생으로 주경야독했다. 실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해 전산분야의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술사 시험에 도전해 2년 만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당시 그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 합격자 중 유일한 여성으로 '정보처리기술사 홍일점 탄생'이라는 내용으로 신문을 장식하기도 했다.

38년 공직생활은 34년 전자정부의 성장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사는 제가 맡고 있던 업무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처리기술을 이해하면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지독하게 공부했지요. 퇴근 후 집 근처 독서실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재 93세인 그의 시어머니는 어린 두 손자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는 등 뒤늦게 공부하는 며느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었다.

그는 "지금 이 자리는 시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의 도전은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산학과가 개설된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유 실장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했고, 전문성 있고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니 기술사도 되고 박사학위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의 38년 공직생활은 우리나라 34년 전자정부 성장의 역사와 같이한다. 유 실장은 1977년부터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업무분석과에서 근무하며 전자정부 초기 단계인 행정전산화 업무를 해왔다. 이후 전산처리관,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와 전자정부국 서비스정보화과 등에서 근무했다.

최근까지도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 행정서비스 부장으로 전자정부 정책 및 시스템 구축 업무 등에 힘써왔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는 그가 추진한 대표적 사업이다. 민원24는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 실장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면서 "멘토가 있었더라면 조금은 시행착오를 덜 수는 있었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발굴해 나가면서 그때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올해 지역인재 1백명 · 기능인재 80명 특성화고-전문대 출신 9급 견습 선발

정부는 올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9급 견습직원 1백80명을 채용한다. 견습직원 선발인원은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할 지역인재 1백명, 기능직 9급으로 채용할 기능인재 80명 등 총 1백80명이다. 행안부는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퍼센트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 후 6개월간 견습근무와 심사를 거쳐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은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관련학과)의 지난 2월 졸업자와 내년 2월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다.

선발직렬(직류)은 회계(30명), 세무(22명), 관세(10명), 전기(3명), 일반농업(30명), 전산개발(5명)이다. 직렬별로 특정 광역자치단체 출신이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게 제한해 전국에서 고르게 선발하게 된다.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은 특성화고 등과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선발직렬은 기계(9명), 전기(3명), 건축(2명), 통신(3명), 선박항해(2명), 조리(2명), 정보통신현업(전신 4명, 기계 4명, 전기 2명, 계리 49명)이다. 지역인재와 달리 지역별 제한은 없다. 시험시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1588-5644 "18개국어 통역봉사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여수엑스포가 화려한 막을 열었다.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단체가 있다. 휴대전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통역을 맡은 비비비코리아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유장희 비비비코리아 회장(오른쪽)이 일본어 자원봉사자 성민주씨와 함께 휴대전화로 통역봉사를 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언어·문화 비정부기구(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BBB KOREA·회장 유장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언어봉사 서비스를 특별 강화하고 있다. 비비비코리아는 지난 4월 9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백4개국, 8백여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박람회 기간 중 외국어 통역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bbb 통역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박람회장 안 총 46개의 국가관 및 안내데스크에 5월 중으로 비치, bbb 서비스를 통해 언어소통이 필요한 많은 내·외국인들의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

현재 비비비코리아는 18개 언어에 능한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속해 있는 언어나눔 단체로 bbb 봉사자 휴대전화를 통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외국인에게 통역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비비코리아', 여수조직위와 업무협약

유·무선 전화를 통해 1588-5644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bbb 통역' 앱을 통해 접속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등 총 18개의 외국어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 중 현지인과 말이 안 통해서 곤란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bb 자원봉사자들이 인천공항에서 bbb 이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비비비코리아는 이외에도 bbb 봉사자의 원활한 통역봉사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배포해 박람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비비비코리아 유장희 회장은 "비비비코리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인이 모이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비비코리아는 언어장벽 없는, 더 나아가 문화장벽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에서 활발한 지원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bbb 운동은 최근 출범 10주년이라는 경사를 맞이했다. bbb 운동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비비비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세계 유일 언어·문화 NGO 올해 창립 10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의 아이디어에 의해 창안된 비비비코리아는 초기에는 'bbb 운동'으로 한시적인 캠페인 성격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월드컵이 개최되는 두 달간 약 2만여 건의 통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bbb는 요즘 대세인 '재능기부'의 효시 격인 존재다. bbb 봉사자들은 작년 한 해에만 6만 건이 넘는 통역봉사를 수행했으며, 국내 외국인 비율 증가세와 더불어 이용률도 급격히 늘고 있다. bbb 콜 요청 건수는 2011년 기준 총 5만6천2백99건으로 bbb 운동 시작 첫 해인 2002년(2만6백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bbb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7만여 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bbb는 Before Babel Brigade의 약자로 바벨탑 이전의 '언어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언어·문화 봉사단이라는 뜻이다. 10년이 넘는 동안 언어·문화 봉사단을 자처하는 4천여 명의 bbb 자원봉사자들은 아무 대가, 보상도 없이 묵묵히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비비비코리아 포르투갈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용 한국외대 교수는 bbb에 보낸 1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bbb 운동이 우리나라 재능기부 운동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비비비코리아 회장을 맡았던 이제훈 상임고문은 "지식인들이 비판은 잘하지만 실천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bbb 운동이 지식인들의 재능나눔 모델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글·박영철 (주간조선 기자)

유장희 회장

"2016년 올림픽 여는 브라질도 배워 갔어요"

유장희 회장은 이제훈 초대 회장의 뒤를 이어 2010년 9월 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유 회장은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저명한 경제학자다. 그는 2005년 봄부터 bbb 운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최근 서울 이태원의 비비비코리아 본부에서 유 회장을 만났다.

bbb 운동의 성공요인이 뭔가요.

우리 국민성이 가장 큰 성공요인입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싶으면 서슴없이 무료봉사하는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펼쳐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bbb 운동의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몇 가지 서약을 해야 합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24시간 내내 켜 놓겠습니다. 소리샘으로 연결해 놓지 않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1년 365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한 푼도 안 받고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뒷받침하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회장인 저를 포함, 총 8명의 직원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일합니다. 저는 월급 한 푼 없이 제 돈 써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내 반응도 좋지만 해외의 반응이 더 뜨거운 편입니다. 특히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국인 브라질의 경우는 지난해 여름 브라질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 대표 3명이 1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bbb의 모든 것을 배워 갔습니다.

어르신!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립니다

1백20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75세 이상엔 치매검진 우선 실시

우리나라에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 인구는 약 1백20만명이다. 오는 203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일 만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독거노인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신당 2동의 한 임대주택에 모여 사는 60~80대 할머니 세 분은 서로 연고가 없는 사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여기고 함께 생활하는 곳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두레 노인의 집'이다. 두레 노인의 집은 주거가 불안정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레 노인의 집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장수정 재가복지팀장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건강이 나쁜 분들은 노인요양원으로 보내 드리고,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입주한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가 운영 중인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외로움 완화(93.5퍼센트), 규칙적인 식사(86.7퍼센트), 영양섭취 개선(1백퍼센트), 생활비 감소(93.3퍼센트)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40개 시·군·구에서 총 2백27곳을 운영 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2년 11.8퍼센트에서 2030년에는 24.3퍼센트로 증가해 4명 중 1 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아

독거노인 수는 2012년 1백19만명으로, 전체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산다. 이는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한 것이며,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백43만명)가 될 전망이다.

노인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다.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노인인구 비율은 7.2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독거노인은 16퍼센트에서 19.4퍼센트로 증가한 반면 노인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의 비중은 같은 기간 13.6퍼센트에서 31.2퍼센트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5월 11일 발표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에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선DB

돌봄체계 구축

안전관리 최우선… 민간봉사참여 지원확대

독거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안전문제가 특히 취약하므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전국 5천4백85명)를 통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요보호 독거노인'으로 분류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란 노인돌보미가 정기적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주는 서비스다.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 잇는 전화'에는 현재 32개 기업이, 직접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마음 잇는 봉사'에는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소통을 위한 가족·사회적 유대 네트워크 결성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지 한참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간 유대 강화다. 독거노인의 96.7퍼센트가 평균 3.86명의 생존자녀가 있으나 자녀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4.9퍼센트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그 가족의 유대 증진을 위해 소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득 · 일상생활 지원

빈곤 벗어날 노인일자리·자립 프로그램 제공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자녀의 부양의식이 약화되는 추세다.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더 빈곤하고 건강 악화 시 일상생활이 힘겹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독거노인의 소득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한다.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를 확대하며, 기존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이 오거나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시작단계의 노인을 위해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분류	지원 종류	내용
안전을 위한 민·관 돌봄 체계 구축	독거노인현황 조사	안전 문제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전국 5,485명)를 통해 전체 현황조사 실시
	공공돌봄 확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돌보미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확대 제공
	민간참여 확산	형편이 좀 더 나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1대1결연을 추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등 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가족과 사회적 네트워크 결성	가족관계 증진	갈등해소법, 대화법 등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부모님께 전화하기 캠페인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운동 확산
	사회적 가족 만들기	농촌에서는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도시에서는 친목모임 형태로 독거노인들끼리 서로 돕는 체계 형성하도록 지원
소득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 노인 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 우선 제공
	일상생활 돌봄 확대	골절 등으로 일정 기간 와상 상태의 독거노인에게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 확대
	정서적 자립 지원	배우자 사망 이후 우울증 등으로 자립생활에 어려움 겪는 독거 시작단계 노인을 위해 정서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살, 치매 및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확대	자살 예방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치매 관리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 치매검진 우선 실시, 치매판정 노인에 대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우선 제공
	만성질환과 존엄한 장례 관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로 빈곤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 보급

만성질환 예방 · 관리 확대

방문관리 서비스·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 보급

독거노인이 만성질환과 치매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통을 줄이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치매판정 노인에 대해 인지능력개선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한다. G

글·박경아 기자

여섯 남매 키우신 시어머니의 힘겨웠던 세월

“발길을 돌리려고~♬” 노랫가락에 흐른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품고 있는 달. 한 일간지에 가출한 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부모 이야기를 기고해 감동을 주었던 소설가 서하진씨가 이번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로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전한다.

여든이 되신 시어머니는 이제껏 66사이즈를 입는 것을 자랑삼는 분이다. 시누들이나 내가 유행 지난 옷, 입지 않는 옷들을 가져가면 시어머니는 당신 뜻대로 자르거나 덧대어 장안에 없는, 야릇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내신다.

“야들아, 어떠노?” 하시며 시어머니는 그걸 입고 한 바퀴, 패션쇼 하듯 맴을 돌고 자식들이 뒤태가 40대라는 둥, 멋쟁이 할아버지들이 다 따라오겠다는 둥 한 마디씩 보탤라 치면 시어머니의 눈빛은 소녀처럼 반짝인다.

몸매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거나 특별한 운동을 즐기시는 건 아니니 시어머니의 비결이라면 평생 게으름을 모르고 살아오신 성정일 것이다. 어머님의 기상 시각은 언제나 다섯 시 반이다. 몇 해 전 큰동서가 갑자기 돌아간 후 시숙과 조카들의 식사를 챙기고 그들이 출근하고 나면 방방을 청소하고 빨랫거리를 거두고 저녁거리를 장만하는 것, 모두가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아들 · 사위와 나들이길에 부르는 그 노래

허리가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온종일 혼자 적적한 날에도 당신 위하자고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법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주말이면 사위나 아들들 중 누군가 사발통문 돌리듯 전화를 하고 한 둘씩 모여든 이들이 향하는 장소는 대개 남한산성이다.

산성 끝까지 오르는 길 중간 참, 등에 땀이 밸 즈음이면 막걸리 파는 아저씨가 나타난다. 시어머니는 두어 사발 탁주를 드시고 상기된 얼굴로 남은 길을 씩씩하게 올라가시지만 내려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발길이 조금 흔들리기 마련이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면 “기분 좋다” 하시며 쫄랑쫄랑 걸어가시는데 이때부터 어머님에게서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발끼이를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써어지 않는 거어쓴 미련인가 아씨움인가아~.” 시어머니가 운을 떼면 아들들이 뒤이어 합창을 한다. “가씀에 이 가쓰으메 심어둔 그 싸아랑이 이다지도 깊을 줄을 나안 정말 모올랐었네. 아이아아 아이아아 진정 난 몰라았었네에에에~.”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춤추듯 한두 바퀴 맴을 돌고 사위와 딸들이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노라면 지나던 사람들이 싱글거리며 쳐다보지만 시어머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신다.

어느 주말, 여느 때보다 막걸리가 과했는지 점심을 드시고 시어머니가 계속 “발끼이를 돌리려고~”라고 흥얼거리시는 바람에 사위 중 하나가 “아따, 오늘 우리 장모님 한번 돌려드리자” 하더니 성큼 일어서서 돗자리를 얻어 왔다. 후식으로 나온 수박 그릇을 들고 우리는 식당 옆 계곡으로 갔다. 누구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물로 들어가 차갑다고 소리를 지르고 누구는 종이컵의 커피를 홀짝이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흥에 겨워 자리 위를 끝에서 끝까지 흔들리는 걸음으로 오가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셨다.

돌아오는 길, 내가 물었다. “어머님, 그 노래가 그리 좋으세요?” 어머님은 눈을 뜨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셨다. “노래 안 좋으나? 가사도 그렇고.” 말씀을 길게 하는 양반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는 또 물었다. “그래도요, 어머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들리드나” 하신 시어머니가 피식 웃음을 흘리셨다. “내가 야야, 몇 번이고 발길을 돌릴라꼬 돌릴라꼬 카다가 못 돌렸잖나… 열아홉에 시집가가주고….”

열아홉, 꽃 같은 처녀의 상대는 서른한 살 노총각이었다. 서울에 사업을 벌이고 두어 달에 한 번 불쑥 다녀가는 신랑은 가고 나면 얼굴조차 가물거렸다. 근동에 소문난 신랑의 어머니는 외며느리를 쥐 잡듯 사납게 대했다. 저녁 내내 밥 생각 없다 하고는 별안간 부엌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이년이 시어미를 굶겨 죽일라카나” 하고 고함을 치기 일쑤였다.

남편이 다녀가는 달을 넘겼다 싶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신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였다. “새댁만 모르지, 다 아는 일이구만.” 옆집 아낙은 입을 비죽거렸다. 까맣게 가슴이 타는 밤을 지나 날이 밝았을 때, 그날 처음 시어머니는 ‘발길을 돌리려’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때마침 병석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오일장, 발이 땅에 닿았나 싶게 뛰어다녀야 했던 닷새가 지나고, 시어머니에게는 발길을 돌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따지기는 고사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남편이 떠나고 다시금 발길을 돌릴까….

일러스트 · 이철원

열아홉, 꽃 같은 처녀의 상대는 서른한 살 노총각이었다. 서울에 사업을 벌이고 두어 달에 한 번 불쑥 다녀가는 신랑은 가고 나면 얼굴조차 가물거렸다. 그 사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여섯 남매를 기르는 동안 이웃 아낙들은 제비처럼 소문을 물어 날랐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발길은 흔들리고 흔들렸지만, 끝내 시어머니는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하루 열두 번 마음 다잡았던 모진 시집살이

하룻밤에도 열두 번 마음을 다잡아야 했던 어느 밤, 시어머니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옆집 아낙을 따라 읍내 놀이패 구경을 간 거였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장고잡이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겼다. “장고 잡는 사내가 아니라 장고 잡는 일. 그게 와 그리 쳐보고 싶든동…. 채 쥐고 몇 번 뚜디리고 나이까 속이 다 씨원 트라카이.”

몇 차례였을까, 시어머니의 밤 외출은 오래가지 못했다. 호랑이 시어머니의 노기는 하늘을 찔렀다. “아이고, 느그 할매가 춤바람 난 메누리라꼬 잡아먹을라 캐서 내가 천지야, 어디야 도망갔잖나.” 넋이 나갈 만큼 혼쭐이 나고 훌쩍이며 잠들었던, 이제 또 발길을 돌려야 하나 싶던 그 밤, 시어머니를 주저앉힌 것은 입덧이었다.

일러스트 · 이철원

그렇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여섯 남매를 기르는 동안 이웃 아낙들은 제비처럼 소문을 물어 날랐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발길은 흔들리고 흔들렸지만, 끝끝내 시어머니는 발길을 돌리지 못했고… 돌리지 않았다.

내 시아버지는 자상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다. 베풀기를 즐겨하니 따르는 이가 많았고 개중에는 당연히 여자도 있었으리라. 그 많은 정을 온전히 시어머니께로 돌리고 이제야 평화로운 날들이로구나 싶던 십수 년 전 어느 날 시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급작스럽고 야속한 이별이었다.

“아이고, 내 살아온 얘기하기도 이래 힘든데 니는 소설을 다 우예 쓰노.” 시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으셨다. 그토록 힘겨운 나날을 살고도 저처럼 편안한 얼굴을 하신 어머님. 차마,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던 어머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노래가 떠오르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G

글 · 서하진 (소설가 · 경희대 국문과 교수)

'한반도의 허리' 이화령 다시 잇는다

일제가 끊은 충북 괴산~경북 문경 구간… 10월에 복원 마쳐

"오늘 여기 국토의 대동맥을 잇는 / 이화령 고갯길은 / 저 일제의 삽날로 끊어진 지 오래 / 이제 아픈 세월을 씻어내고 / 인류의 멘토로 나서는 더 큰 겨레의 / 우렁찬 출정을 하는 백두대간의 첫 걸음이다" -이근배 시인 기념 축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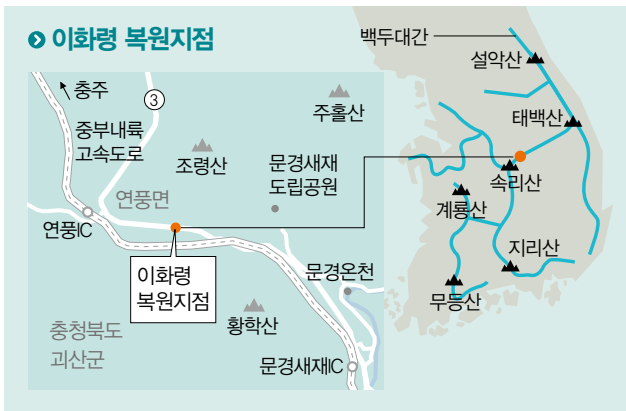
노시인이 읊은 시 한 구절에 간절히 담은 바람처럼 일제에 의해 끊어졌던 한반도의 허리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뜬 곳은 바로 남한 쪽 백두대간의 중심인 이화령이다.

지난 5월 16일 충북 괴산군 이화령휴게소 광장에서 백두대간 이화령 구간 복원 기공식이 열렸다. 이화령은 백두대간의 본줄기로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를 잇는 고개이면서 낙동강과 한강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이화령 복원은 백두대간의 역사성 회복"

이화령은 조선시대에는 문경새재, 하늘재와 함께 '조령삼로'라 하여 괴나리봇짐을 멘 상인들이 영남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넘어와 한양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었다. 하지만 1925년 일제는 '한반도 신작로화'를 명분으로 도로를 내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 버리고 말았다.

이날 열린 기공식은 끊어졌던 백두대간을 복원함으로써 이화령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와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시작의 자리였다.

기공식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돈구 산림청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임각수 괴산군수,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과 백두대간보전회, 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백두대간진흥회 등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이화령에 친환경 터널을 설치하여 복원한 조감도.

맹형규 장관은 치사에서 "이화령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끊어진 백두대간을 이어 민족정기와 얼을 되찾는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큰 사업"이라며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남겨 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국내 여성 최초로 백두대간을 종주한 '국내 1세대 여성 산악인' 남난희(54)씨를 비롯해 남북한의 백두대간을 모두 답사하고 백두대간 영문 가이드북을 낸 로저 알란 셰퍼드(48·뉴질랜드) 씨 등 백두대간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도 기공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셰퍼드 씨는 "백두대간은 한국인의 삶과 역동성의 근원이며 역사문화 유산의 보고"라며 "이화령 복원은 백두대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사업비 43억6천만원을 투입해 이화령 구간에 친환경 터널을 설치하고 토종식물을 심는 등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이화령 복원이 완료되면 일제 강점기에 끊긴 강원 강릉 대관령, 전북 장수 육십령, 경북 상주 눌재 등 8개 구간을 비롯해 1960년대 이후 끊긴 주요 구간 5곳 등 백두대간 구간 13곳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

글·손수원(월간 산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도 주부 9단"

냉장고 관리에서 예방접종 도우미까지 유용한 앱 쏟아져

다양하고 유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앱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성이나 주부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은 잘 활용하면 생활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진다.

쇠고기 이력제 앱 | 마트 내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앱으로 바코드나 문자인식을 통해 소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지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블로그와 연결돼 농수산식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전통시장 앱 | 엔조이마켓(Enjoy Market) 앱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앱으로 시장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근교의 전통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5일장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사진 등록도 가능하다. 볼거리, 먹거리, 인근 관광지 정보를 담은 '전통시장 투어', 생생한 시장뉴스를 알려주는 '전통시장 소식', 문화·관광형 시장과 시장투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전통시장 안내' 메뉴가 있다.

생활백서 앱 | '악취가 날 때는 숯이나 원두커피 찌꺼기를 두거나 양초를 켜 두면 악취가 사라진다'와 같이 청소, 요리, 세탁, 민간요법 등 분야별로 살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싣고 있다.

세면대 물때 지우는 법, 막힌 배수구 뚫는 법, 스타킹 오래 신는 법 등이 궁금하면 이 앱을 받아 볼 것!

냉장고 매니저 앱 |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유용하다. 장보러 가기 전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을 체크해 갈 수 있고 달걀, 우유 등 식품의 유효기간을 표시해 둘 수 있어 음식물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각 식재료의 요리법도 제공한다.

예방접종도우미 앱 | 자녀가 두 돌 전까지 엄마가 챙겨야 할 예방접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예방접종도우미 앱은 자녀의 예방접종일에 맞춘 알림기능을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와 연동돼 자녀의 예방접종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녀별로 등록이 가능하며 기타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아수첩 앱 | 영아를 키우고 있는 주부라면 자녀가 섭취하는 분유량을 일일이 체크하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다.

여성포털 이지데이를 비롯해 각 분유 판매사 등에서 제공하는 육아수첩 앱은 아이가 하루에 먹는 분유량와 모유량을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다. 수면시간, 배변시간, 목욕시간도 기록이 가능해 우리 아기의 수면패턴도 알아보기가 수월하다.

우리 아이 지킴이 앱 |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배포한 앱이다. 아이가 성폭력 위험 상황에 따른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안전의식 테스트'에서부터 긴급상황 발생시 센터에 직접 연결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니콜&택시안심이 앱 | 범죄를 예방하는 호신용 앱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지니콜은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돕는 앱이다. 밤늦은 귀가 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 때 가상 전화통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전화벨이 울리며 실제 간단한 가상통화도 가능하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를 대비한 긴급통보 기능도 있다.

이에 비해 택시안심이 앱은 늦은밤 택시를 탔을 경우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앱이다. 택시에 있는 동안 미리 설정해 놓은 지인들에게 문자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해 주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밖에 호루라기 앱 등도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해킹!… 막을 수 없다면 대응을 잘하자

책임회피용이 된 법 조항은 기업이 자율로 해킹 방지하게 바꿔야

지금까지는 인터넷 업체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3천5백만명의 회원정보를 유출당한 포털에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이것이 확정된다면 보상금이 회사 연 매출의 1백배가 넘어 그 포털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한국 보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누구나 해킹을 당할 수 있다. 해킹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완벽한 기술은 없다. 3천5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포털도 따지고 보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해킹당한 피해자이다.

인터넷 서버는 각종 보안장비로 철저히 방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직접 침투하기는 어렵다. 해커들은 대신 서버를 관리하는 포털 본사의 사용자 PC를 노렸다. 외부 백신 업체의 업데이트 파일을 악성 파일로 바꿔치기한 후 포털 본사 컴퓨터가 감염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 후 악성 파일이 설치된 PC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회원 정보를 빼 간 것이다. 해킹 작업은 실제 업무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업체는 해킹 사실을 알아내긴 했지만 언제 얼마만큼의 자료가 유출되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법적 의무조항이 피해보상 면책사유 둔갑

정보통신망법에는 침입차단 시스템 설치,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뿐만 아니라 백신 등 바이러스 방지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법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기업들이 해킹방지에 큰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

한 쇼핑몰 업체는 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이 법 조항을 준수했다는 논리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의 안전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고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 운용했으며 접속기록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까지 빠뜨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후 업체들은 소위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피해보상에서 면책받을 수 있었다. 해킹으로 인해 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그 보상은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를 논해야 할 재판정에서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이다.

사실 보안조치를 법에 명시해 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조항을 다 지킨다고 해킹에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형식적인 보안조치는 실질적인 해킹방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법 조항에 백신을 깔아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백신의 성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백신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성능보다는 가격이 싼 제품만 찾게 될 것이다. 보안 프로그램은 최신 해킹 기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최신 업그레이드가 필수지만 굳이 그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업체들이 실질적인 해킹방지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법 조항 준수에만 매달리게 되면 사용 편의성에도 무관심하게 된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는 컴퓨터에 깔린 백신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만의 백신을 설치하게 만든다. 방화벽 프로그램 등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신경 쓰면 성능이 검증된 백신을 인스톨하여 어떤 사이트에 가더라도 다 통용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편리성을 갖추어야 백신들끼리의 경쟁이 가능해 보안 프로그램 사용이 좀 더 쉽고 편해질 수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사용자 편의 · 보안 강화는 기업에 맡겨야

미국의 금융거래 사이트 페이팔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보안사고를 줄이는 위험관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페이팔은 보안을 핑계로 사용자 컴퓨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사용자들의 거래를 추적함으로써 사용자 각각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거래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한다.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용자의 신용도는 올라가는 반면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나라에 송금할 때는 액수 제한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페이팔은 확률에 근거한 방법으로 허위거래 비율을 낮추는 데 집중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금융 사이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국의 인터넷 업체들은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법상의 보안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상의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제는 사용자들의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2011년 소니는 해커 집단과 갈등을 빚는 바람에 집중 공격을 받아 7천7백만명의 온라인 게임 회원정보를 유출당했다. 소니는 초기에 해킹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전략을 바꾸어 정보를 공개하고 대표이사가 공식사과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사용시간 연장과 게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당 최대 1백만 달러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 조기에 이 사실을 알리고 추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킹으로 인한 불편을 입은 사용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피해액만큼을 보상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업체는 법 조항을 무기로 보상의무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포털도 정식 판결이 나기 전에 있었던 법원의 소액 화해 결정을 거부했다. 그 소액조차도 3천5백만명 모두에게 지급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면책받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해야 하는 현행 법 조항으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 피해만 보상토록 법 조항 개선을

정보통신망법에서 구체적인 보안조치 사항을 명시한 것이 문제다. 업체는 해킹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해킹에 대한 책임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조사를 통해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은 통상적인 보안조치로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해킹방지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해킹을 당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사용자에게 무조건적인 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한 보상 정도로 그치고 대신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킹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업체들이 스스로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애쓰게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글 ·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단산의 봉우리 끝 문경활공장에선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문경 레저여행

훨훨~… 탕탕탕!… 아슬아슬 스트레스 한방에 날려주마

옛길의 도시 문경을 찾았다. 영남대로 중 가장 험난한 길로 알려진 문경 토끼비리를 걸었고 하늘을 비행했으며 깊은 숲의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질주하고 낡은 철로 위에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온통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내륙의 도시 문경에서 찾아 낸 마력과도 같은 매력. 일상의 스트레스는 총소리와 함께 저만치 사라졌다.

"자, 준비됐습니까? 지금 바람 좋습니다. 힘차게 뛰어 나갑니다. 하나, 둘, 셋!"

교관의 외침에 있는 힘껏 달려 나갔다. 두세 번의 달음박질 끝에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몸은 다시 가라앉았고 바로 앞 덤불 속으로 콕 처박혔다. 첫번째 시도는 실패. 동쪽에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이다. 흐트러진 장비를 챙기고 벗겨진 운동화의 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는 다시 한 번 불끈 힘을 모아 대지를 박차고 올랐다. 두둥실, 어느새 두 발은 허공에서 대롱거리고 있었다. 한결 가벼워진 몸은 이내 중력에서 해방됐다. 그랬다. 우리는 날고 있었다.

해발 9백56미터 단산의 봉우리 끝을 다져 만든 문경활공장에서 교관에게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패러글라이딩 2인승 탠덤비행에 도전했다. 체험비행이기 때문에 교관이 뒤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알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긴장감에 초여름 날씨임에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던 것 같다.

월드컵 대회 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헬멧을 쓰고 관절 구석구석 보호대, 오렌지색 글라이더가 매달린 장비를 착용하고는 불어 오는 동풍에 맞서 이륙하기에 알맞은 바람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할까' 하는 생각을 백 번쯤 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까마귀가 긴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날고 단팥빵처럼 생긴 구름이 몽실몽실 떠 있었으며 눈앞에 펼쳐진 운달산과 대미산, 조령산은 물론 멀리 주흘산의 초록 숲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 풍경에 홀린 찰나 얼떨결에 시작된 처녀비행. 놀랍게도 긴장과 공포는 이내 환호와 감탄으로 변했다. 공중을 부유한다는 자유로운 느낌에 마음은 금세 편해졌고 가끔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를 느끼면서 하하하, 하고 크게 웃을 수도 있었다. 문경읍 반대 방향에서 시작된 비행은 활공장 봉우리를 돌아 문경읍이 내려다보이는 상공으로 이어졌고 반듯반듯한 논밭의 평화로운 풍경을 발아래에 두고 천천히 하강했다.

해발 8백60미터 상공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5분 만에 끝이 났다. 무사히 착륙장에 두 발을 딛는 순간 몸과 마음이 참 상쾌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국내 첫 레일바이크 세 구간 각각 운영

오랜만에 찾은 문경은 어느새 레저스포츠의 도시로 변신해 있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세계대회를 두 번이나 개최한 활공장이 있으며 주말이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려야

가은역을 출발한 레일바이크. 정선에 이어 문경도 레일바이크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불정산휴양림내 조성된 짚라인. 짜릿한 공중질주를 경험할 수 있다.

무게 3.8킬로미터의 엽총을 이용해 즐기는 클레이사격.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스트레스와 이별이다.

하는 클레이사격장과 깊은 숲 속 나무와 나무 사이를 와이어를 타고 이동하는 새로운 레포츠인 짚라인, 어린이 가족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 철로자전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다. 주말의 문경은 신나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여행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문경선(聞慶線)의 폐철로를 이용해 조성한 문경 철로자전거는 국내 최초의 레일바이크 시설이다. 진남역에서 불정역 방면으로 2킬로미터 구간과 불정역에서 주평 방면의 1.8킬로미터, 가은역에서 먹뱅이 방면 2킬로미터 등 세 구간에서 각각 운행하고 있으며 진남역에서는 오전 8시30분부터, 불정역과 가은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단위로 운행한다.

세 구간 중 가장 먼저 예매가 마감되는 구간은 진남역 구간. 산이 이어지고 물이 흐르며 짧은 터널 등 다채로운 코스가 이어지는 왕복 4킬로미터의 진남역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경치가 좋고 볼거리가 다채롭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정역은 영강변의 강자갈을 쌓아 올려 만든 독특한 외관으로 인상적이다.

가은읍 가은오픈세트장과 석탄박물관 인근의 가은역에서 출발하는 코스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뾰족지붕을 한 아담한 외관의 가은역은 간이역의 낭만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역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당분간 원형 보존을 위한 공사 때문에 역사 안을 둘러볼 수는 없다.

단 한 방에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고 싶다면 문경관광사격장으로 가면 된다. 주말이면 사격 체험을 하려는 여행자로 북적인다. 클레이사격이 가장 인기 있다. 25발의 엽탄이 든 상자를 하나씩 들고는 사격대에 서면 교관이 총 쏘는 법과 목표물(클레이)을 맞히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총구가 긴 엽총에 탄환을 장착하고 '아!' 하는 소리로 신호를 보내면 클레이가 튀어나오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까지 0.1초의 집중력으로 목표물을 맞혀야 한다. 총에서 총알이 떠나는 순간의 거대한 울림과 온몸에 전해지는 반동은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다. 동시에 사격에 성공하는 순간의 희열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군대에서 사격 좀 했다는 남자들이나 생전 우리나라에 사는 동안 총 따위는 만져 볼 기회조차 없는 여성들에게도 클레이사격은 색다른 경험임에 틀림없다.

클레이사격 · 짚라인은 색다른 레저체험

짚라인(Zip Line)은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레저 종목이다. 짚라인은 본래 열대 우림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이 뱀이나 벌레, 독이 있는 동물을 피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줄을 타고 이동하던 교통수단이었다. 짚라인이라는 명칭은 와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지~잎~'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 붙여졌다.

문경의 짚라인은 불정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돼 있다. 초급 수준의 1백25미터짜리 코스에서 시작해 고급 수준의 3백60미터에 달하는 코스까지 모두 9개의 코스를 넘나들며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된다. 각 코스는 산의 협곡을 따라 이동하거나 계곡을 지나거나 낙차가 꽤 큰 지형을 지나는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숙련된 'ZG(Zippling Guide)'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린이(30킬로미터 이상)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 단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임산부 등은 참여할 수 없으며 긴 바지와 운동화는 안전을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할 준비물이다.

문경 레저여행의 마무리는 문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험난한 길로 손꼽히는 '토끼비리'에서 마무리한다. 토끼비리는 문경 가은읍을 지나는 영강과 문경새재에서 내려오는 조령천이 합류하는 곳에서부터 산간 협곡을 'S'자 모양으로 돌아 흐르면서 생성된 벼랑에 난 길이다. '비리'는 강이나 바닷가의 위험한 낭떠러지를 일컫는 '벼루'의 사투리.

아름답고 아찔한 길 '토끼비리' 트레킹도

고려 왕건이 남쪽으로 진군할 때 이곳에 이르러 길이 없어졌는데 마침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는 것을 보고 따라가 길을 내게 됐다는 이야기에서 '토끼비리'라는 이름이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이 길은 영남대로(嶺南大路) 중 가장 험난한 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의 양 옆은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아찔한 경사면을 자랑한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걷기엔 대단히 위험한 길로 주의해야 한다.

이 길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돼 있는 등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국가명승지(제31호)로 지정돼 있다. 고모산성의 진남문에서 성곽 길을 따라 가다 보면 토끼비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고, 길은 오랜 세월 수많은 나그네의 발길에 닳고 닳아 반질하게 윤이 날 정도다.

영남대로에서 가장 험난한 길로 알려진 토끼비리. 국가명승지로 지정돼 있다.

빽빽이 들어찬 나무 숲 사이로 반짝이며 언뜻 보이는 영강의 풍경이 근사하고 켜켜이 쌓인 시간과 사연이 깃든 길을 걷다 보면 문득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이다. G

글 · 고선영(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여행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중부내륙고속도를 이용해 문경새재IC나 점촌·함창IC를 이용하면 문경으로 진입할 수 있다. 문경새재IC에서 문경새재도립공원까지 10분 거리다. 철도를 이용하려면 김천과 대구, 부산, 영주, 강릉 등에서 점촌역을 잇는 기차를 타면 된다. 대중교통은 서울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점촌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타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토끼비리는 고모산성 뒤편 주차장에서 시작하면 되고 **문경활공장**(☎054-571-4675)과 **관광사격장**(☎054-553-0001), **철로자전거**(www.mgtpcr.or.kr), **짚라인**(☎1588-5219) 등은 문경새재도립공원 기준 차로 30분 거리 내에 있다.

먹을 곳 문경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약돌한우 또는 약돌돼지고기다. 약돌한우나 돼지고기는 문경에서만 생산되는 거정석(일명 약돌)을 배합 사료에 혼합해 사육한 것으로 고기의 육즙이 풍부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인기다. 약돌한우는 문경새재IC에서 나와 문경새재도립공원 방면에 있는 **한우타운**(☎1588-9075)에서, 약돌돼지고기는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새재할매집**(☎054-571-5600), **새재초곡관**(☎054-571-2020)이 유명하다. 토끼비리길이 시작되는 고모산성 아래 **진남매운탕**(☎054-552-7777)은 영강에서 건져 올린 민물고기 매운탕이 맛있기로 알려졌다. 문경은 버섯재배지로도 유명해 자연산 능이버섯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잠잘 곳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숙소가 몰려 있다. 문을 연 지 오래됐지만 단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문경관광호텔**(☎054-571-8001)이나 문경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경새재유스호스텔**(☎054-571-5533)을 추천한다. 특히 유스호스텔은 단체뿐 아니라 8인까지 묵을 수 있는 널찍한 방을 1인당 1만5천원에 빌릴 수 있다. (최소 금액은 1박당 5만원) 역시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스머프마을펜션**(☎054-572-3762)도 인기 있는 숙박지. 고급리조트로는 **STX문경리조트**(☎054-460-5000)와 가장 최근 문 연 **문경새재리조트**(☎054-572-5100) 등이 있다.

즐길거리 문경의 아름다운 계곡 여행도 좋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문경은 더없이 멋진 계곡을 잔뜩 품었다. 문경의 서쪽 대야산(9백30미터) 자락에는 용추계곡과 선유동계곡이, 희양산(9백30미터) 남쪽 자락은 백운대계곡, 운달산(1천97미터)에는 운달계곡이 있다. 그중 용추계곡은 문경의 계곡 중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을 지녔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차고 깨끗한 계곡에서 탁족을 즐기거나 하늘을 뒤덮은 깊은 숲에서 한낮의 더위를 피해 본다. 왕복 4시간 30분의 트레킹 코스도 좋다.

불혹에 성질 못 다스리면 …

임진왜란이 터지는 바람에 덮이기는 했지만 임진왜란이 터지기 불과 2~3년 전 조선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기축옥사로 불리는 정여립의 난 때문이었다. 지금도 학계에서는 정여립을 불운한 혁명가로 보기도 하고 무리한 역모 추진으로 피바람을 자초한 반역자 정도로 폄하하기도 한다. 이런 논란은 별개로 하고 정여립의 생애를 간략히 훑어보면 자중자애라는 말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정여립(鄭汝立·1546~1589)은 명종이 죽고 사림이 추대하다시피 한 선조 초 새로운 기풍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문과에 급제했다. 그때 그의 나이 24세였으니 상당히 일찍 벼슬길에 오르게 된 셈이다.

관리생활 초반 정여립의 길은 탄탄대로였다. 38세인 1584년에는 핵심요직이랄 수 있는 홍문관 수찬(정5품)에 오른다. 게다가 정여립은 서인의 핵심인물인 이이와 성혼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서인으로 분류되던 정여립은 이이를 비판하고 동인으로 전향한다. 전향의 이유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이이가 세상을 떠나고 서인이 약화된 반면 이이의 라이벌이던 이발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줄을 바꿔 선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이 당시 정여립은 불혹(不惑)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제자가 혹(惑)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하루아침의 분노로 자기 자신을 망각해 (그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혹이다."

선조는 당파를 바꾼 정여립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요직에 앉히기를 거부했다. 이에 정여립은 욱하는 심정으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버렸다. 불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데다가 서인들에게 정여립은 '스승을 배반한 패륜아'였다. 서인 쪽에서는 어떻게든 정여립을 손보려 했다.

그런데 빌미를 제공한 것이 다름 아닌 정여립 자신이었다. 진안으로 내려간 정여립은 은둔의 삶을 택하지 않고 대동계를 조직해 세력을 확장하고 무장까지 시키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다.

대동계를 만든 이유가 조선왕조 붕괴의 '역모'였는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왕조국가에서 사병에 가까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경솔하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일러스트 · 유재일

당파를 바꾸는 것은 '스승을 배신하는 패륜' 왕도 이를 못마땅히 여겨 요직에 등용 거부 욱하는 심정에 낙향해 대동계 만들어 무장 고발에 의한 2년여에 걸친 피바람 자초

결국 1589년 10월 사건이 발생했다. 황해도관찰사 한준이 정여립의 '역모' 사실을 중앙에 고변한 것이다. 그로 인해 2년 가까이 계속된 살육은 역사 책에 있는 그대로다. 정여립도 사건발발 초기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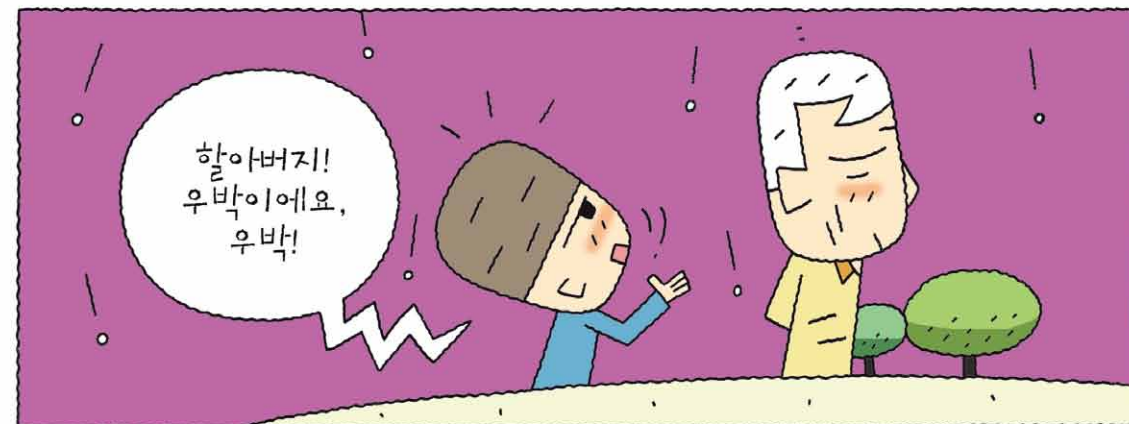
정여립의 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학계의 몫이다. 다만 어느 쪽으로 평가가 이뤄지건 관계없이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경솔함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경계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논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공자의 제자 유자의 말은 정여립의 생애를 떠올리면서 읽을 때 그 울림이 한층 커진다.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또)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다."

즉 개인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갑자기 거창한 이야기를 해댈 때 우리는 일단 조심하여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가장 안전한 곳?

글과 그림 · 최영순

흥하고 쇠함이 어찌 항상 같으며, 강하고 약함이 또 어디 따로 있겠는가.
세상 만물은 이처럼 항상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 - 채근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마이클 샌델 지음 · 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 1만6천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유독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저자다. 2009년 미국에서 나온 〈정의란 무엇인가〉는 2010년 국내에 번역되면서 1백20만부가 팔렸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팔렸다. 미국 아마존닷컴에서는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못 올랐지만 교보문고 집계 최장기 기록인 24주 연속 종합 베스트 1위에 올랐으며 교보문고 개점 이후 인문서로는 처음으로 연간 베스트 1위도 차지했다.

이 같은 인기 덕분에 신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미국과 동시에 한국에서 출간됐다.

제목이 보여주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에 대해 "그래도 되나?"는 반문이다. 첫 문장부터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한다.

책을 보면 '시장지상주의는 이미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있다. 공항에서는 1등석·비즈니스석이란 이름으로 검색대 '새치기'를 허용하고 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도 일반 입장료의 2배쯤 내면 줄 앞쪽에 세워 준다.

시장지상주의는 불평등 · 부패로 위험

이런 상황에서 '정의'의 샌델은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재화·서비스는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될 때 최선의 결과를 낳을까? 시장이 전부인가?"라는 의문이다.

그는 시장지상주의는 '불평등'과 '부패'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먼저 불평등. 그는 자유거래는 능력의 평등이 전제돼야하지만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시장의 약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펴면서 위반자에게 벌금을 매긴다면 결국 벌금을 낼 능력 있는 부자만 자녀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부패' 혹은 가치 타락의 경우 시장은 상품으로 만물을 간주할 뿐이지 좋고 나쁜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전작 〈정의란 무엇인가〉가 정답 대신 골치 아픈 질문만 던졌듯, 신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역시 무엇을 돈 주고 살 수 없는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런 건 돈으로 사고팔면 안 된다'는 목록도 없다.

하지만 샌델은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값으로 매기기 어려울 땐 바로 거기에 공공성과 덕목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역시 '정의'와 '도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숙고하게 만든다. G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새로 나온 책

누구도 아프지 말아라

정영 지음 | 달 · 1만3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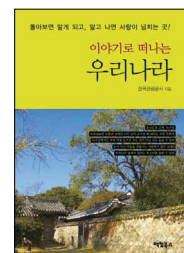
우직하게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을 만난 시인 정영의 에세이다. 30명의 스님이 전하는 말씀을 글로 적고 스님의 모습과 절 안 풍경을 사진으로 담았다. 행복, 그리움, 분노, 욕심 등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마음을 이야기를 통해 반추해 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의 뒷부분에는 본문에 더 이상 실을 수 없었던 서른세 분 스님의 한 구절 말씀을 실었다.

다산에게 인생을 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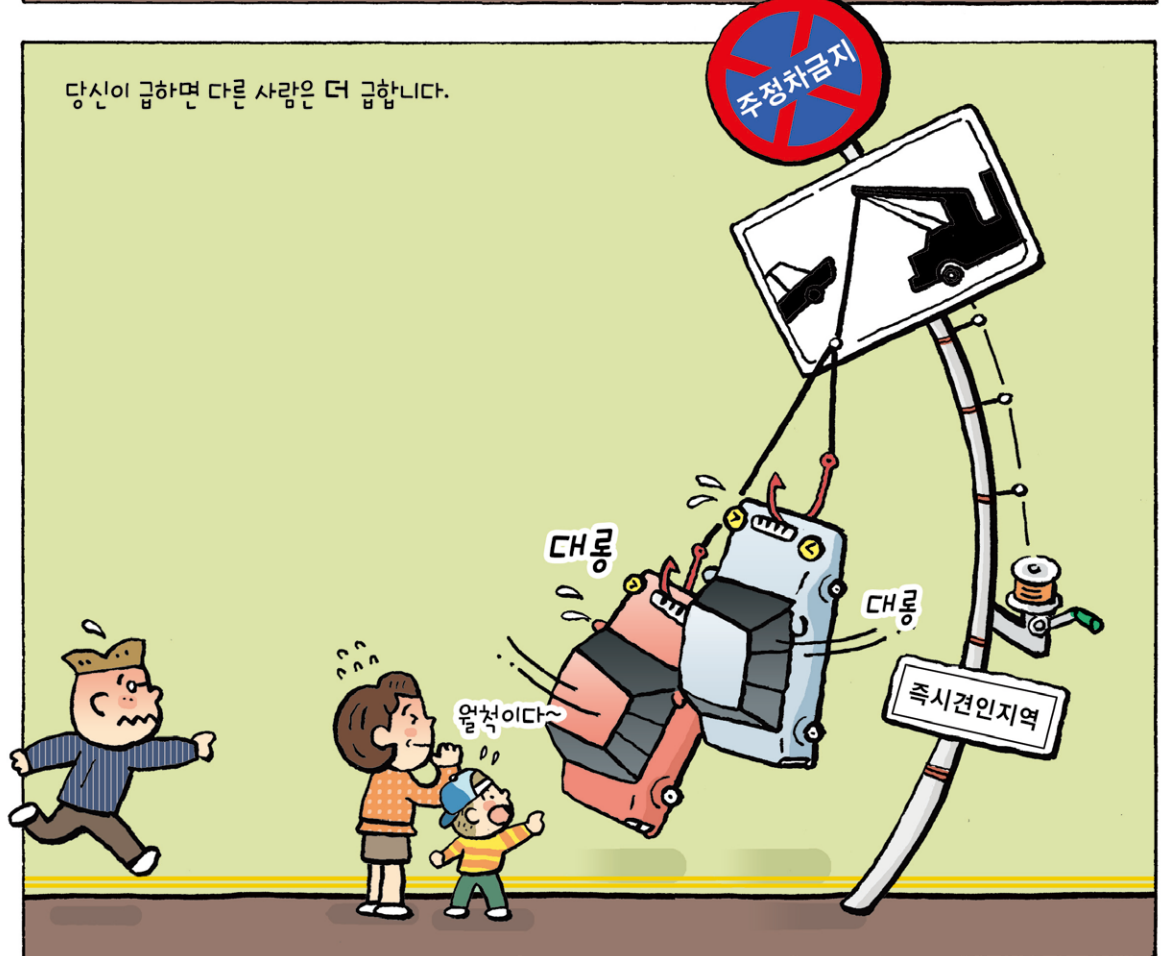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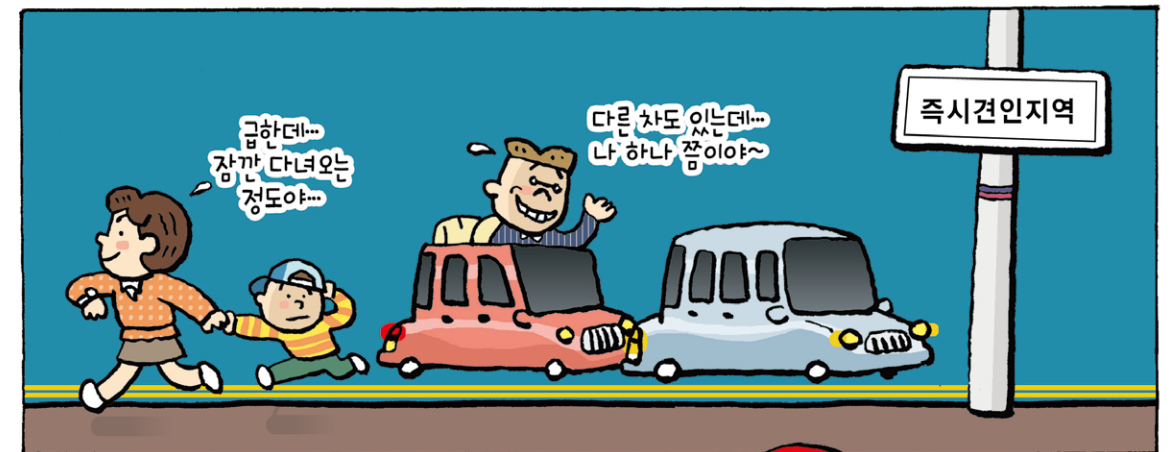
전도근 지음 | 북스타 · 1만2천원

다산 정약용 탄생 2백50년 기념 출간작이다. 다산의 삶과 작품을 통해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준다. 다산의 인생을 공유하며 미래를 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을 갖도록 했다. 다산에게 리더십, 창의력, 공부, 미래, 인내, 성공을 묻는 형식으로 총 6장으로 구성했다. 다산 연대기와 어록도 함께 수록했다.

이야기로 떠나는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지음 | 팩컴북스 · 1만7천원

우리들이 뻔하다고 느껴왔던 국내 여행지에 숨어 있던 이야기들을 찾아내 들려준다. 뻔한 여행지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낯선 이방인의 눈으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소개해주고 있다.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닌 '이야기가 있는 여행'을 통해서 발견한 색다르고 재미있는 여행들이 가득하다. 시끌벅적한 도시를 벗어나 그동안 몰랐던 숨겨진 역사와 문화, 현재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불법주차 '꼼짝 마!'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공감하는 '결혼식 축가'

시인 바이런은 "웨딩마치는 언제나 나로 하여금 전투에 나가는 병사의 행진곡을 연상케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결혼이란 세리머니는 언제나 우리를 들뜨게 설레게 한다. 결혼식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로 산업적 세를 불려나가는 만큼 결혼식에서 갓 태어날 부부, 그중에서도 특히 신부를 향한 축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음악 부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1970~80년대까지도 웨딩 현장에서 대중가요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여전히 전통혼례식이 많아 대중가요가 설 자리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대중가요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낮아 결혼이란 성스러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존 덴버의 'Annie's song'이나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같은 서구 팝송이 간간이 울려 퍼지곤 했다.

대중가요의 사회적 파괴력이 상승한 1990년대 와서 비로소 대중가요가 축가의 대세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축가 전문가수와 단골 레퍼토리가 등장했다. 아마도 그 첫 사례는 남성듀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그리고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와 '사랑의 서약'일 것이다. 특히 '사랑의 서약'은 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약이라는 제목 때문에도 백년해로의 부부서약과 정확히 궁합이 맞아 결혼식에서 압도적 환영을 받았다.

90년대 들어 대중가요가 '축가'의 대세로

하지만 축가로 한동안 분주히 불려다니던 한동준은 남성듀엣 유리상자의 등장과 함께 뒤로 밀렸다. 유리상자는 아예 결혼식 축가를 겨냥한 듯한 곡 '신부에게'(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꿈꾸는 설레임/ 나만을 믿고 내 곁에 선 소중한 그대…)를 가지고 있는데다 이어서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극중 박신양이 상대역 김정은에게 고백하면서 이들의 노래 '사랑해도 될까요?'를 부른 덕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가 전문가수로 점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단독 공연은 6백 회 이상, 결혼식 축가는 7백 회 이상으로 방송 출연보다 결혼식 축가 횟수가 더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도 결혼의 달인 5월이면 결혼식장에 가는 것만으로 스케줄이 꽉 찬다. 곧 재혼 커플에 맞는 축가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일러스트 · 이철원

유리상자의 노래와 더불어 근래 환영받는 축가는 이적의 '다행이다', 김동률의 '감사' 그리고 성시경의 '두 사람' 등이 대표적이다. 결혼식의 사실상 주인공인 20~30대 신부들 사이에서 이들의 인기가 워낙 견고한 것은 물론이고 곡들 자체가 웨딩 현장에서 부르면 그만인 가사로 진행되는 덕분이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걸…'(다행이다),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감사), '먼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걸…'(두 사람).

팝송 중에는 조시 그로반과 웨스트라이프가 부른 'You raise me up'이 0순위다. 내용이 신랑신부만이 아니라 양가 부모를 위한 감사의 곡으로도 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수라면 이제 축가를 놓쳐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결혼식 하객들은 가수가 소통을 원하는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의 다세대'로 이뤄져 있지 않은가. 젊은 남녀의 결혼식을 많이 보고 싶다. 신랑신부와 가족, 친지, 친구의 어울림에 기여하는 행복한 축가를 많이 듣고 싶다. G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